



2017 K LEAGUE TECHNICAL REPORT

2017 K 리그 기술보고서



2017 K LEAGUE TECHNICAL REPORT

“열정을 기록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17시즌의 데이터와 지표를 분석한 시즌총괄보고서 ‘2017 K LEAGUE Technical Report’를 발간합니다.

축구의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K리그를 수놓은 데이터 하나하나엔 올 시즌 K리그를 빛낸 수많은 선수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가 세계적인 수준의 리그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2017시즌 K리그 클래식(1부)과 챌린지(2부) 총 410경기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단순한 득점, 패스, 점유율 같은 수치기록을 뛰어넘어 데이터를 통해 선수들의 플레이스타일을 ‘장’, ‘플레이메이커’, ‘전사’, ‘방패’, ‘수문장’으로 분석해 담았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통해 클래식 MVP 이재성, 챌린지 MVP 말경의 플레이를 되짚어봤습니다.

선수들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 감독들의 치열한 지략대결을 데이터 분석으로 복기해 K리그의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2017년 K리그를 추억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으로 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해 K리그를 사랑해 주신 축구팬 여러분, 그리고 최선을 다한 선수 및 코칭스태프 구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01 2017 SEASON REVIEW

절대 1강 전복과 네 개의 탑 | 8

유례없는 생존 싸움 | 11

OFF THE PITCH: VAR이 몰고 온 변화 | 12

02 TECHNICAL TOPICS

왜 다시 백스리(Back Three)인가? | 14

익사이팅 풋볼 | 16

점유율의 숨은 뜻 | 18

포메이션과 승률의 상관성: BACK THREE vs BACK FOUR | 20

03 MEN IN NUMBERS

GOAL PATTERN: 골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 24

ATTACKING: 공격을 마무리하다 | 26

PLAYMAKING: 플레이를 만들다 | 28

HARD WORKING: 중심을 잡다 | 30

DEFENDING: 위험을 막다 | 32

GOAL KEEPING: 팀을 구하다 | 34

CLASSIC PLAYER OF THE YEAR: 이재성 | 36

CHALLENGE PLAYER OF THE YEAR: 말경 | 38

ENTERTAINING: 한눈팔 수 없는 그들 | 40

04 TEAM PROFILES

데이터 항목 정의

패스 같은 팀 선수에게 볼을 연결하는 플레이
키패스 슈팅으로 연결된 마지막 패스
진진패스 상대 진영을 향한 패스
백패스 자기편 골라인 쪽에 있는 자기편 경기 자에게 패스
패널티박스 안 패스 패널티 박스 내로의 패스
크로스 상대팀 진영 절반 측면 부근에서 패널티 박스로 향하는 패스(공중볼 또는 땅볼)
장거리패스 패스 거리가 41m 이상인 패스
수비형 경합 자기팀 수비지역에서의 상대방과 경합하는 플레이
공격형 경합 상대팀 공격지역에서 상대방과 경합하는 플레이
공중볼 경합 공중에 뜬 공을 두고 양 팀 선수가 공중에서 경쟁하는 플레이

태클 볼을 상대방으로부터 빼앗으려는 시도를 통해 2m 이상 볼을 떼어놓는 것
드리블 상대 선수를 돌파 혹은 따돌리려고 하는 플레이(퍼스트 터치에 의한 돌파 제외)
인터셉트 상대방의 공을 가로채어 볼 소유권을 획득하는 플레이
프리볼 잡기 상대팀 진영에서 공 터치 실패 혹은 상대팀의 부정확한 패스로 경합 없이 공을 다시 잡은 횟수
볼 되찾음 상대 팀 진영에서 단일 공 점유의 시작 상황
점유 3번 이상의 볼터치, 공을 가지고 최소 6m 이상의 범위를 이동했을 시, 명백한 공격 전개를 위한 행동.

평균 점유시간 모든 단일 공 점유의 중간 값
상대팀 진영 점유 (반칙을 제외한) 상대 지역에서 팀 점유로 만들어진 적어도 하나의 행동을 포함하고 3초 이상 지속돼야 함.
공격 1/3지점 점유 축구장을 가로로 삼등분했을 때 상대 골문 쪽에 해당하는 범위에서의 점유 횟수 및 점유율
슛 시도 득점을 목적으로 공을 차거나 헤딩하는 플레이
유효슈팅 골키퍼에 의해 막아진 슛, 슛 정확도에 대한 의심이 있어도, 세이프 된 거라면 유효슈팅으로 지칭.

2017 SEASON REVIEW

2017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모두 '절대 1강'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클래식에서는 전북이 2년 만에 왕좌를 탈환했다. 챌린지에선 경남이 조기 우승을 확정하며 다음 시즌 클래식 복귀를 자축했다. 전북과 경남은 기록으로 모든 면에서 상대를 압도했다.

2017 K리그 클래식 최종 순위

순위	팀명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1	전북	75	22	9	7	73	35
2	제주	66	19	9	10	60	37
3	수원	64	17	13	8	63	41
4	울산	62	17	11	10	42	45
5	서울	61	16	13	9	56	42
6	강원	49	13	10	15	59	65
7	포항	52	15	7	16	64	60
8	대구	47	11	14	13	50	52
9	인천	39	7	18	13	32	53
10	전남	35	8	11	19	53	69
11	상주	35	8	11	19	41	66
12	광주	30	6	12	20	33	61

2017 K리그 챌린지 최종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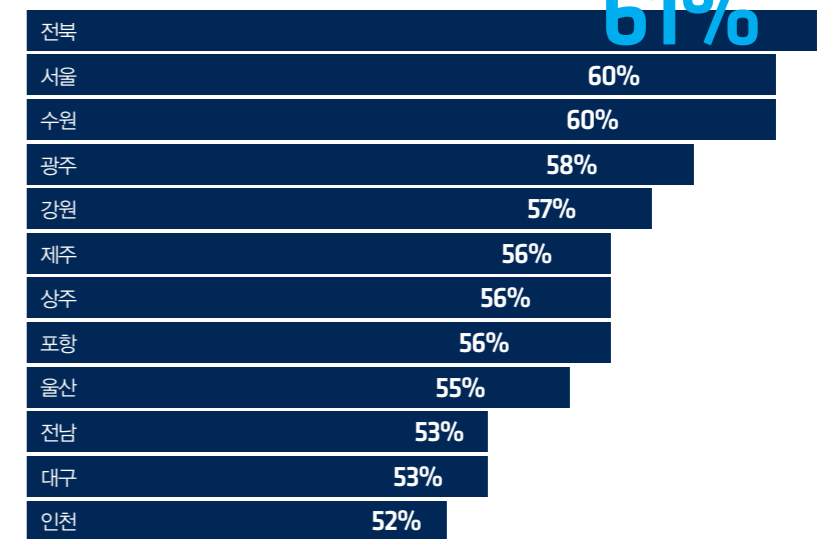
순위	팀명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1	경남	79	24	7	5	69	36
2	부산	68	20	11	6	55	30
3	아산	54	16	9	13	45	40
4	성남	53	13	14	10	38	31
5	부천	52	15	7	14	50	46
6	수원FC	45	11	12	13	42	48
7	안양	39	10	9	17	40	58
8	서울E	35	7	14	15	42	55
9	안산	33	7	12	17	36	54
10	대전	29	6	11	19	41	60

절대 1강 전복과 네 개의 탑

2017시즌 K리그 클래식은 상위 팀과 하위 팀의 편차가 뚜렷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전북이 큰 어려움 없이 우승을 확정했고 스피릿 A, B 그룹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갈렸다. 4위에서 7, 8위까지 두텁게 경쟁권을 형성했던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강원(6위)과 포항(7위)의 정규리그 막판 순위 싸움이 긴장감을 불어넣은 정도였다. 이른바 '빅4'군도 일찌감치 형성됐다.



상대진영에서의 볼 점유율



절대 1강 | 전북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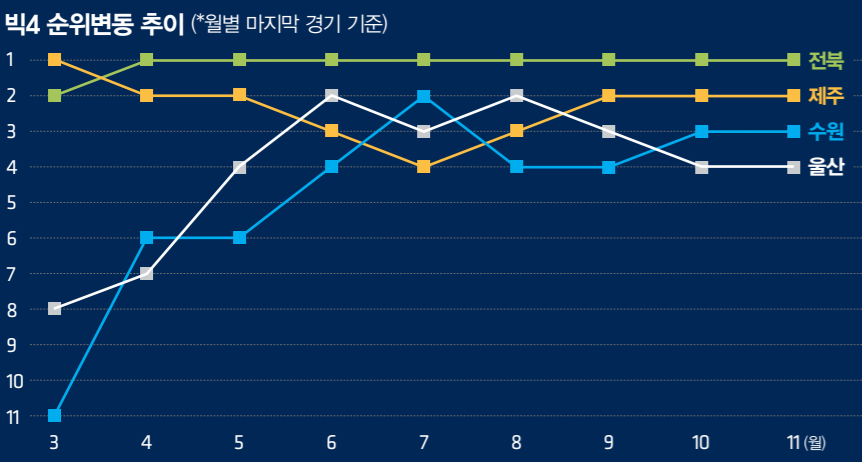
전북은 매 시즌 우승후보 1순위로 손꼽히는 팀이다. 2017시즌에는 독주가 더욱 두드러졌다. 13라운드 수원전(5월27일) 2-0 승리로 1위에 오른 후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초반 홈구장 임시 이전(전주종합경기장), 부상자 다수 발생, 대표팀 차출 등 변수가 있었음에도 균질한 경기력을 유지했다. 리그에만 집중할 덕에 경쟁팀들보다 유리한 싸움을 벌일 수 있었다. 기록으로 드러나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였다.

단순 기록부터 살펴보자. 시즌 전적 22승9무7패로 클래식에서 유일하게 20승 이상을 챙겼다. 득점 기록에서도 70골 고지를 넘었다. 73골을 기록했다. 반면 실점은 35골 밖에 없다. 전년도 자신들의 기록(71득점-40실점) 보다 더 앞선 성과다. 전북의 압도적인 힘은 공격력에서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슈팅수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경기당 평균 15.4회 슈팅을 시도했고 이 중 유효슈팅은 5.7개였다. 이 부문 2위 수원(12.8개/4.8개)부터 6위 제주(12개/4.5개)까지 5개팀 기록보다 뛰어나다.

부분 전술의 완성도도 높았다. 전북은 세트피스에서 가장 많은 골(28골)을 넣은 팀이었다. 코너킥(7골), 프리킥(6골), 직접 프리킥(6골), 페널티킥(7골), 스로인 공격(2골) 등에서 성공률이 높았다. 그만큼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했다. 장신 공격수, 주력이 좋은 선수, 드리블러, 키커, 스로인에 장점이 있는 선수 등 활용할 카드가 많았다는 뜻이다.

전북의 공격 성향은 점유율에서도 드러난다. 단순히 공을 소유한 시간만으로 볼 때 전북의 기록은 저조한 편이다. 이 부문 1위는 서울이다. 경기당 평균 29분55초로 7위 전북(26분05초)보다 오랜 시간 볼을 가졌다. 그러나 전북의 전체 점유시간 중 61%가 상대 진영이었다. 자기 진영보다 상대 진영에서 공을 다룬 시간이 더 길었다는 뜻이다. 골대 근접 거리인 상대 진영 1/4지점에서의 점유율(39%)과 페널티박스 안 점유율(16%)도 리그 최고를 기록했다. 팀의 전체 플레이 중 공격 비중이 그만큼 높았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는 또 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시도한 패스 횟수와 성공률이 가장 높았다. 프리킥과 코너킥을 포함한 크로스에서 슈팅으로 이어가는 성공률이 가장 높은 팀이기도 했다. 좋은 키커와 걸출한 패서가 존재했다는 방증이다. 특히 풀백 김진수의 공격 기여도가 인상적이다. 김진수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 시도/성공률'과 '크로스 시도/성공률' 부



문에서 각각 염기훈(수원), 김태환(상주)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김진수의 포지션이 풀백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효율성이 더 커진다. 전북의 공간 활용과 공격에 가담하는 수비수들의 활약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두터운 선수층을 활용한 로테이션도 안정적으로 이뤄졌다. 2017시즌 경기에 출전한 전북 선수는 모두 27명. 클래식 12개 팀 중 가장 적은 숫자다. 자연히 선수 개인당 출전시간은 전북이 가장 많았다(1487분). 리그 평균(1265분)을 상회했다. 27명의 선수 중 17명이 1100분 이상의 시간을 보장받았다. 경기 출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는 거의 모든 선수들에게 일정한 시간을 보장했다는 뜻이다. 균질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제주의 화력, 수원의 뒷심, 울산의 효율

전북이 일찌감치 아시아 무대 진출을 확정하면서 남은 2.5장의 티켓은 제주(2위), 수원(3위, 0.5장), 울산(4위, FA컵 우승)에게 돌아갔다. 울산을 제외한 세 팀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령탑 장기 집권 체제였다는 점이다. 10년 이상 전북 지휘봉을 잡고 있는 최강희 감독을 비롯해 서정원 수원 감독(2013~), 조성환 제주 감독(2015~)

모두 자신의 색깔을 입히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 선수단 변동에도 비교적 일관성을 갖고 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제주의 팀컬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할 수 있다. 상반기에는 화끈한 득점력으로, 하반기는 백스리 기반의 탄탄한 수비로 승점을 쌓았다. 제주의 화력은 다양한 득점원에서 찾아야 한다. 모두 19명의 선수가 60골을 합작했다. 전북(14명), 수원(14명), 울산(15명)보다 많은 숫자다. 마그노(13골) 같은 골잡이도 존재했지만, 공격수에 편향되지 않은 득점 루트로 상대를 공략했다. 세트피스에서는 다소 아쉬웠다. 18골로 팀 득점의 30%를 세트피스에서 챙겼지만, 리그 전체에서는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정운, 권순형 등이 주로 키키에 나섰고, 오반석(2골), 김원일(3골), 권한진 등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이 두드러졌다.

수원은 제주와 정반대였다. 결출한 해결사 한 명이 팀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보여줬다. 조나탄 홀로 22골을 넣었다. 팀 득점(63골)의 35%에 해당한다. 도움 기록까지 합한 공격포인트는 25개다. 경기당 1골에 가까운 결정적 기회를 만들었다. 조력자 산토스(9골 3도움), 스페셜리스트 염기훈(6골 11도움)의 활약을 더해 뒷심을 발휘하며 3위로 올라섰다. 득점 시간대에서도 뒷심을 확인할 수 있다. 75분부터 종료 시점까지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 팀 득점의 29%(18골)가 나왔다. 30~45분(11골), 60~75분(11골) 사이에도 많은 골을 기록했다. 전반 막판, 후반 중반 이후 공격 의지가 결실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울산의 경우 승점 관리에 효율성을 보였다. 스코어보다 승수 확보에 더 집중했다. 승리를 챙긴 17경기 중 무려 15경기가 한 골 차 승부였다. 두 골차 이상으로 승리한 경기는 두 번 밖에 없다. 반면 크게 패할 때는 많았다. 열 번의 패배 중 두 골차 이상 대량 실점 패배가 다섯 차례나 된다. 이 5경기에서만 18실점을 기록했다. "0-1로 패하나 0-5로 패하나 승점은 제로"지만 "1-0이든 5-0이든 승점은 3점"이라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승점 관리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였던 셈이다.

유례없는 생존 싸움

인천은 또 한 번 가을의 전설을 썼다. 상주는 승강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은 첫 클래식 팀이 됐다. 이들과 달리 경남은 여유있게 클래식에 복귀했다. 부산은 끝내 클래식 문턱을 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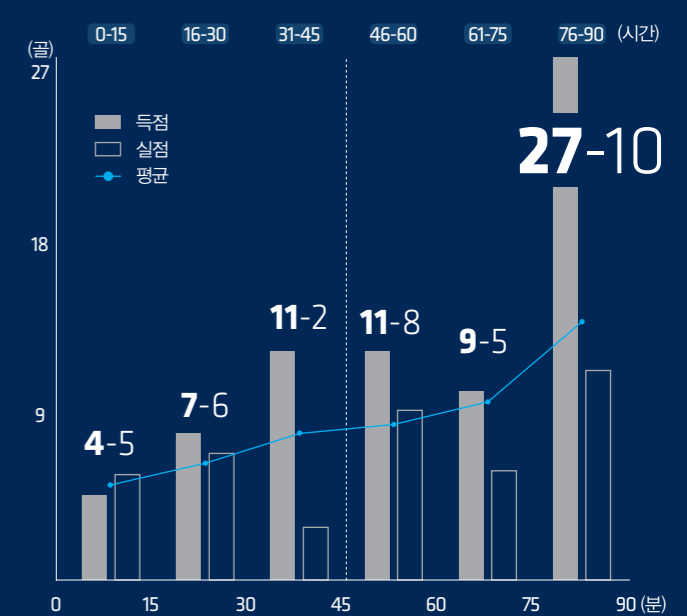
스플릿B 순위변동 추이(8월~11월, 2주 간격)

팀명	8/13	8/20	9/17	9/30	10/15	10/29	11/19
포항	7	7	7	7	7	7	7
대구	9	9	9	9	8	8	8
인천	11	10	10	11	11	10	9
전남	8	8	8	8	10	11	10
상주	10	11	11	10	9	9	11
광주	12	12	12	12	12	12	12

스플릿B 팀 간 승패 현황

팀명	포항	대구	광주	인천	상주	전남	승점
포항	-	1-2	4-0	5-0	4-3	3-1	12
대구	2-1	-	2-0	0-0	2-2	1-0	11
광주	0-4	0-2	-	0-0	1-0	4-2	7
인천	0-5	0-0	0-0	-	2-0	2-2	6
상주	3-4	2-2	0-1	0-2	-	0-0	2
전남	1-3	0-1	2-4	2-2	0-0	-	2

시간을 압도하는 경남의 힘(*시간대별 골득실 현황)



생존왕 인천유나이티드

인천의 '막판 극장'이 올해도 재연됐다. 인천은 승강제 도입 첫해인 2012년(9위)과 2013년(7위)에 스플릿A 마지노선을 오갔고 2014년(10위), 2015년(8위), 2016년(10위)에 이어 올해 최종 9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매 시즌 큰 폭의 물갈이가 이뤄지는 팀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하반기에야 조직력이 궤도에 오른다. 실제로 6월 말까지 골짜기에 머물다 하반기 들어 강등권 내에서 소폭의 상승이 있었다.

하위팀 간 경쟁인 스플릿B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 포항과 대구가 각각 승점 12, 11점을 챙기며 잔류를 확정하곤 인천도 승점 6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광주도 승점 7을 쌓아 선전했지만, 희망의 불씨를 태우기엔 너무 늦은 시기였다. 시즌 초부터 하위권을 전전하던 광주는 8월 5일 꼴찌로 내려간 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 시즌 중 감독 교체라는 '극약'에도 승격 3년 만에 다시 챌린지로 내려가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전남과 상주의 희비도 엇갈렸다. 전남은 특히 하반기에 대량 실점 등 승점 관리에 실패하며 고전하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인천이 상주를 이긴 덕을 봤다. 승점 경쟁팀이었던 상주와 똑같이 35점이 됐지만, 다득점에서 앞서 10위가 됐다. 상주는 11위로 승강 플레이오프 경쟁에 나서야 했다.

독주왕 경남

클래식에 전북이 있었다면 챌린지엔 경남이 있었다. 일찌감치 리그 독주 체제를 굳혔다. 3월 26일 선두에 올라선 이래 시즌 끝까지 자리를 고수했다. 챌린지 최다 연속 무패(18경기) 기록도 썼다.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갖춘 팀이지만, 압도적 승점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은 역시 공격에서

찾아야 한다. 말캉이라는 결출한 외국인 공격수와 정원진, 배기종, 정현철 등 공격을 지원하는 조력자들이 전방위에 포진했다. 시간대별 득실 기록도 흥미롭다. 경남은 전반보다 후반, 초반보다 막판에 더 강한 팀이었다. 경기 초반 실점해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만회했다. 특히 후반 30분 이후 득점 기록은 압도적이다. 90분 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승부를 결정하는 힘이 뛰어났다는 의미다.

2위 부산은 부지런히 경남을 추격했다. 그러나 10월 8일 맞대결에서 0-2로 패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동력을 잃었다. 두 팀 간 최종 승점차는 11점이었다. 아산(54점), 성남(53)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격을 노렸다. 그러나 상주의 노련한 경기 운영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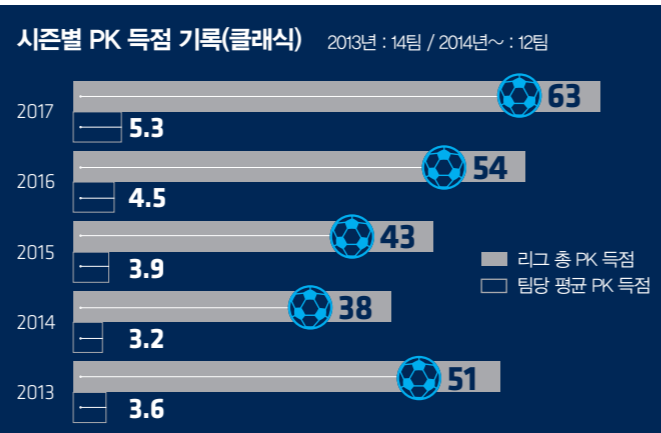
OFF THE PITCH: VAR이 몰고 온 변화

2017년 K리그가 선보인 새로운 풍경. 비디오판독(VAR) 시스템 등장이다. 페널티킥 득점 증가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경기 전 살수 의무화도 관전 묘미를 더했다.



페널티킥 득점 증가

VAR 시스템은 득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VAR은 제한적 상황에만 개입하기 때문이다. 득점, 페널티킥, 퇴장, 다른 선수에게 잘못된 징계를 적용하는 경우다. 기록으로 살펴보면 연관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승강제를 실시한 2013년 이후 팀당 페널티킥 득점기록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대체로 평균 서너골 수준이었던 비해 2017년에는 5.3골이다. 전년대비 16.7% 증가했다. 주심이 놓친 장면을 VAR 판독으로 잡아 페널티킥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평균 기록을 상회하는 팀은 강원(9골), 광주, 전북, 제주(이상 7골), 수원, 서울(이상 6골) 등 모두 여섯 팀이다. 페널티킥 최소 득점 팀은 울산으로 2골에 그쳤다. 흥미로운 것은 페널티킥을 얻은 횟수와 성공률의 상관관계다. 대구의 경우 페널티킥 기회가 8회 주어졌지만 성공률은 63%였다. 포항은 네 차례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1골을 성공하는 데 그쳤다.



#장면1 • 6월18일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 수원이 0-1로 끌려가던 전반 34분 전반 34분 하프라인 아래서 찰러준 볼을 미드필드 가운데 있던 조나탄이 잡아 빠르게 드리블 한 뒤 동점골을 만들었다. 패스부터 드리블,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조나탄의 개인 기술이 돋보였다. 이를 뒷받침한 건 홈구장의 살수효과였다.



#장면2 • 하루 뒤 구덕운동장에서 벌어진 챌린지 17라운드 부산-성남전. 후반 3분. 이지민의 패스가 물기를 머금은 잔디에 바운드 됐다. 부산 수비가 볼의 방향과 방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골문 앞으로 쇄도한 황의조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결승골을 넣었다.

경기 전 살수 의무화

K리그에 '경기 전 그라운드 물 뿌리기'를 의무화한 뒤 나온 풍경이다. 잔디 표면에 물기가 생기면 앞서의 사례처럼 불이 구르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볼을 컨트롤하는 공격수가 대응하는 수비수보다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다. 득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경기 전 살수를 의무화하기 전과 후의 득점수에 변화가 있었다. 클래식 13라운드 5경기에서는 모두 12골(평균 2.4골)이 나왔다. 규정을 공포한 직후 14라운드 6경기에서는 18골(평균 3골)로 증가했다.

TECHNICAL TOPICS

2017년 K리그 클래식은 전술적으로 뚜렷한 경향성을 보였다. 백스리(back 3) 기반의 전술 운영으로 성공한 팀이 두드러졌다는 점과 승격팀들의 '익사이팅 풋볼'이 리그 판도를 바꿔놓았다는 점이다. 챌린지의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리그별 '절대 1강' 전북과 경남은 독보적이었다. 포메이션을 뛰어넘는 전술적 유연성을 보였다.

왜 다시 백스리(back 3)인가?

전북의 독주 체제가 공고해질수록 2위권 싸움이 치열해졌다. 울산, 제주, 수원, 서울이 앞서거니뒤서거니 경쟁을 벌였다. 마지막에 AFC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받아 든 주인공은 제주와 수원이었다(*울산은 FA컵 우승). 공교롭게도 두 팀 모두 백스리 기반의 전술을 활용했다. 승점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제주와 수원의 성공

백스리 기반의 전술이 갖는 전통적 미덕은 수비 안정이다. 최종 수비라인을 구성하는 3인 외에 양 사이드백이 수비 지역을 커버하고 수비 앞 선의 미드필더가 후방을 보호하는 형태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에서 즐겨 쓰는 경향이 있다. 모험적이고 공격적인 운영보다 대처 능력을 조직화하면 실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와 수원이 백스리 카드를 꺼내든 것도 수비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2016년 제주는 전북과 함께 리그 최다골(71골)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점(57골) 기록에서는

▶ 데이터로 확인하는 오반석의 가치. 제주 백스리 전술의 핵심으로 활약했다

수비형 경합 성공률
(395 시도 - 301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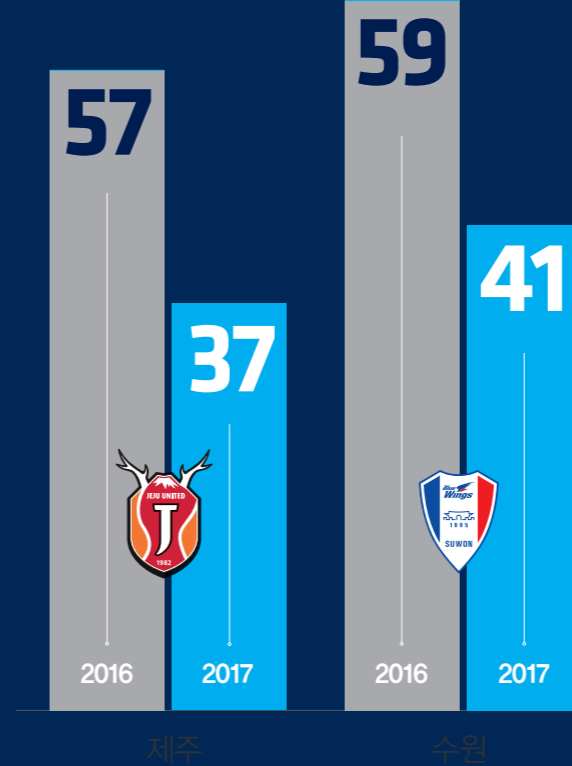


74%
공중볼 경합 성공률
(268 시도 - 197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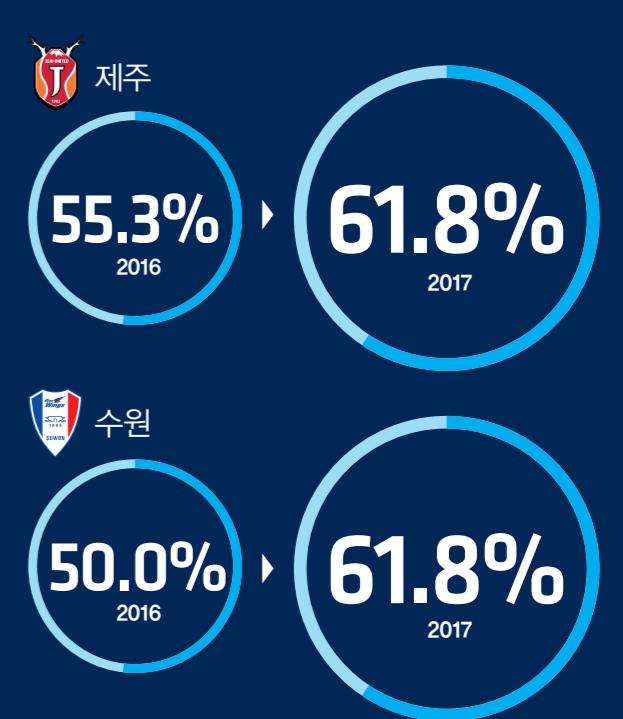
패스 성공률
(1430 시도 - 1154 성공)



실점 감소 현황



2016시즌-2017시즌 승률 비교



세 번째로 골을 많이 허용한 팀이었다. 우승 경쟁에 '2%'가 부족한 팀이었다. 수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원은 전년도 득점(56골)보다 실점(59골)이 많은 팀이었다. 순위표에서는 하위권(8위)이었다.

2017년에는 반전에 성공했다. 두 팀은 백스리 기반의 포메이션으로 주 전술을 구상했다. 조성한 감독과 서정원 감독 모두 "실점을 줄이는 데 먼저 집중했다"며 백스리를 꺼내 든 배경을 밝혔다. 결과는 기대한 대로였다. 제주는 37실점, 수원은 41실점으로 눈에 띄게 안정을 이뤘다.

백스리에 이상적인 조합으로 여겨지는 자원은 대체로 이렇다. 지능적인 수비 리더와 공중전에 능하고 발이 빠른 선수, 파이터형의 수비수다. 각각의 개성과 강점을 엮을 수 있는 구성이다. 제주는 이 부분에서 가장 조화로운 구성을 선보였다. 오반석의 리더십에 김원일의 투지와 대인방어 능력, 권한진의 높이와 커버 플레이가 더해졌다. 여기에 베테랑 조용형과 알렉스까지, 수비진에서만 로테이션이 이뤄질 정도였다. 특히 오반석은 개인 기록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수비형 경합에서는 총 395회 중 301회 성공으로 최

고 성공률(76%)을 기록했다. 공중볼 다룸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공중전을 시도한 횟수는 268회로 송승민(광주, 520회)의 절반밖에 안되지만 성공률에서는 74%(197회)로 선두에 올랐다. 이런 특기는 팀의 세트피스 상황에 중요한 옵션으로 활용됐다.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2골을 기록했다.

발상의 전환, 탄력적인 운영

수비적인 운영에만 강점이 있는 건 아니다. 현대 축구에서 백스리는 공격시 숫자 싸움에 유용한 전술이 될 수 있다. 서정원 수원 감독은 "백스리를 공격적으로 운영하면 윙백들을 공격수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미드필더들의 적극적인 전진도 기대할 수 있다. 후방의 수비 숫자가 세 명이기 때문이다. 조성환 제주 감독은 유연하게 템포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90분 동안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내려섰다가 카운터 어택을 할 수도 있고 전방압박을 통한 공격을 펼치기도 한다. 먼저 선제골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 조직적인 움직임이나

완성도가 높아지면 더 위협적인 전술이 될 수 있다."

백스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후방 빌드업 능력이다. 현대축구에서는 센터백의 역할이 공격의 시발점으로 확장됐다. 과거 리베로처럼 활동폭이 넓은 건 아니지만 미드필더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오가며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원의 경우 중앙 미드필더였던 이종성이 백스리의 한 축을 담당했다. 서정원 감독은 "공격할 때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 전술 이해도가 높은 윙백들을 보유할 수록 유리하다. 측면 수비수들의 역할이 수비에만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공수 전환의 키가 측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조성환 감독은 제주의 백스리 전술 도입 배경으로 "공격 감각이 좋은 정운과 안현범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현범의 경우 원어에서 윙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했다. 위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상대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팀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

익사이팅 풋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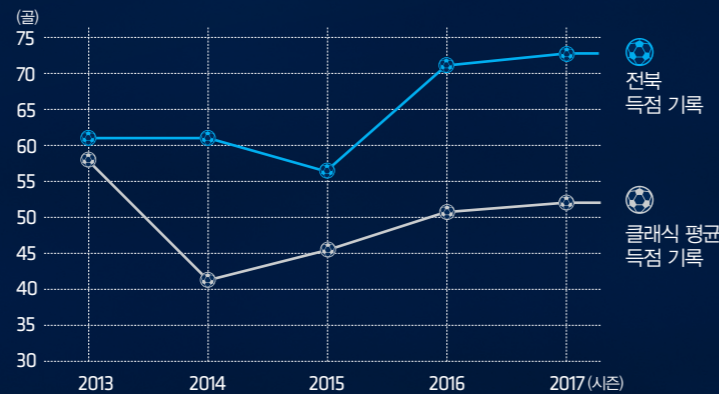
축구를 완성하는 요소는 골이다. 2017 K리그는 클래식과 챌린지에서 모두 전년 대비 득점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클래식으로 승격한 두 팀 강원과 대구의 분전이 두드러졌다.

리딩 클럽 전복 & 하위권 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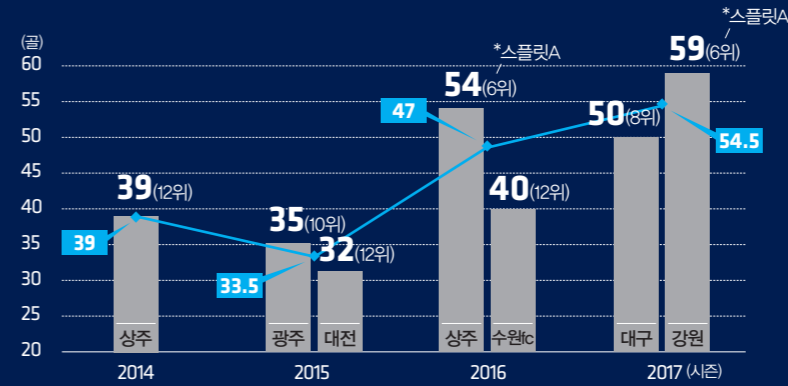
K리그 클래식에서는 총 626골이 쏟아졌다. 618골이 터진 전년보다 8골이 더 많아졌다. 우승팀 전북이 여전한 화력을 자랑했다. 38경기에서 무려 73골을 만들었다. 리그 통산 한 시즌 팀 최다 득점 기록이다.

'다공을 브랜드화한 전북의 득점력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클래식 평균 득점 기록을 늘 상회하는 팀이다.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결정력과 2선의 지원 능력에서 조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2016년에는 제주와 함께 팀 70골 고지(71골)를 넘어서며 클래식 총 득점 기록을 대폭 끌어올

클래식 평균-전복 득점 기록 비교



클래식 승격팀 득점 현황



렸다. 2015년 리그에서 나온 골은 모두 546골이었는데, 2016년에는 618골로 크게 늘었다. '리딩 클럽' 전북의 득점력이 리그 기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7위 이하 하위권의 분전도 눈에 띈다. 스플릿B에 속한 팀들의 득점 기록은 모두 273골이다. 전년(270골)보다 소폭 증가했다.

챌린지도 16골이 늘었다. 442골을 기록했던 전년에 비해 3.6% 증가(458골)했다. 역시 '리딩 클럽' 경남의 화력이 챌린지 득점 기록에 영향을 미쳤다. 경남은 2017시즌 69골을 넣었다. 챌린지 평균 득점(45.8골)을 훨씬 상회하는 기록이다. 조기 승격을 확정지은 결정적 배경이 됐다.

생존을 원하는 자, 골을 넣을지나

2017시즌 K리그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클래식 승격팀 강원과 대구가 잔류에 성공했다. 2013년 승강제 실시 이후 승격 두 팀이 모두 생존한 경우는 처음이다. 이들이 살아남은 비결은 바로 득점력에 있었다. 강원은 클래식 평균 득점 기록(52.2골)보다 많은 골(59골)을 넣었다. 대구는 평균 득점에 근접하는 기록(50골)을 남겼다. 승격팀 대부분이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에 집중한다. 상대적으로 공격에는 몸을 사린다. 모험적인 운영보다 수비 지역을 지키는 게 더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프(*위)로 확인하면 더 극적이다.

두 팀의 전략은 달랐다. 강원은 개막 전부터 수비수보다 공격수 영입에 더 공을 들였다. 개막 후에도 일관되게 공격력으로 승부를 걸었다. 간

수 있었던 힘이다. 강원은 종착지는 스플릿 A그룹이었다. 여기서 전년도 상주의 득점 기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상주는 54골을 확보하면서 승격팀 최초로 스플릿 A에 진입했다. 50골보다 많은 득점에 성공하면 생존을 넘어 스플릿 A까지 가시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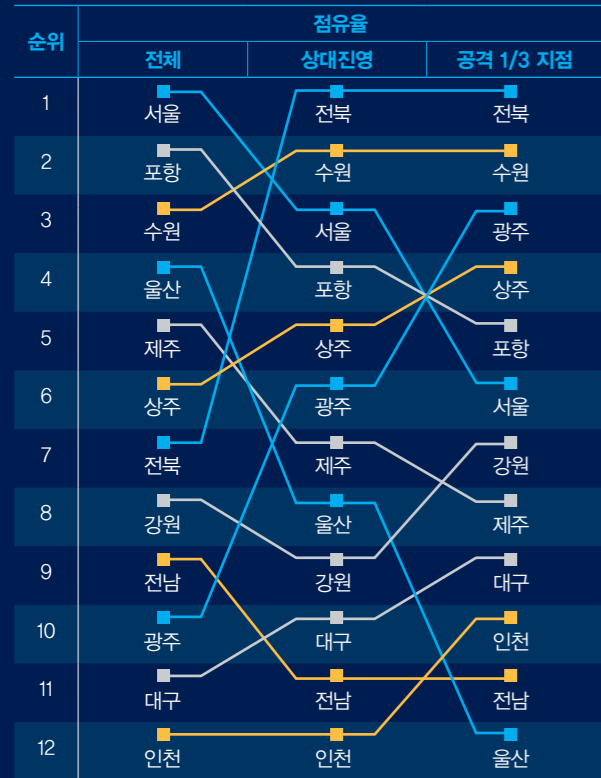
대구는 수비 안정 후 공격 본색을 드러낸 팀이다. 전반기에는 골을 넣고도 뒷심 부족-실점-패배(무승부)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됐다. 하반기에는 변화했다. 백스리 전술에 선수들이 적응을 마쳤고 수비 조직력도 좋아졌다. 이후 막판 역습에 강한 팀이 됐다. 먼저 실점하고도 동점골, 역전골을 더 많이 넣는 팀으로 변모했다. 착실히 승점을 쌓으면서 스스로 잔류를 확정짓는 힘을 보였다. 2016년 상주를 제외한 승격팀들이 바닥권을 전전하던 것과 비교하면, 2017년 강원과 대구의 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생존을 원하는 자, 골을 넣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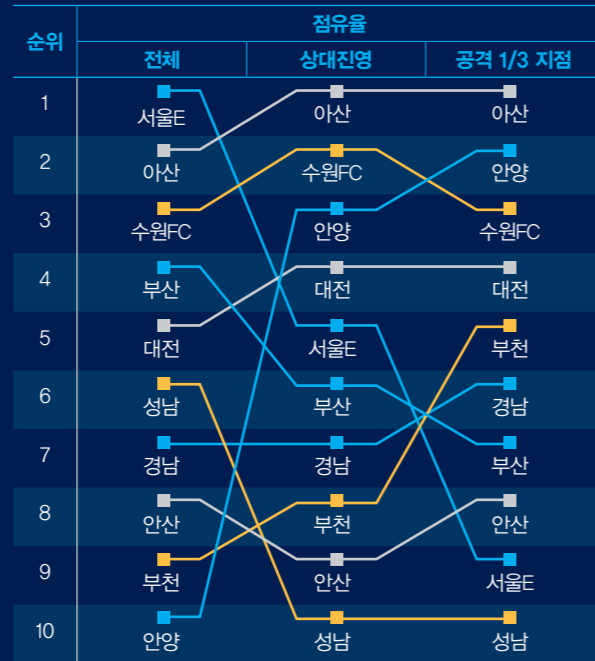
점유율의 숨은 뜻

점유율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높은 볼 점유율이 승리의 필요 조건일까? 2017시즌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에서 나타난 팀 점유율을 비교해봤다.

클래식 점유율 순위표



챌린지 점유율 순위표



2017시즌 클래식을 제패한 전북은 전체 볼 점유시간에서 리그 7위에 그쳤다. 의외라고 생각하면서 현미경 조리개를 좁히자 상대지역과 공격방향 1/3지점에서의 점유시간이 또렷이 보였다. 모두 리그 1위였다. 그라운드 전체 영역에 걸친 볼 소유 중에서 공격 비중이 가장 컸다는 뜻이다. 더 간단히 말하면, 전북은 볼을 다루는 시간에 공격을 제일 많이 시도했던 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편에 선 팀은 FC서울이었다. 리그에서 전체 점유시간이 가장 길었다. 하지만 상대 골문에 가까워질수록 점유시간이 짧아졌다. 상대 지역 점유율은 리그 3위, 공격 1/3지점 점유율은 리그

6위에 그쳤다. 자기 진영에서 볼을 돌리며 신중하게 전진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정작 슈팅 가능 지점(일반적으로 공격방향 1/3지점)까지 도달하기에는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페널티박스 안으로 연결된 패스 숫자에서도 FC서울은 리그 5위에 그쳤다. 울산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전체 점유율에서 리그 4위였던 울산은 상대 지역 점유율 8위에 그쳤고, 공격 1/3지점 점유율에서는 리그 최하위를 나타냈다. 최종 순위 4위와 AFC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확보라는 결과를 대비해서 해석하면, 울산은 수비 쪽에서 안정적으로 경기 템포를 조절하다가 크게 한방을 노리는 스타일로 재미를

봤다고 할 수도 있다.

챌린지의 볼점유시간 전체 1위인 서울이랜드의 수치는 더 드라마틱했다. 상대지역 점유 5위, 공격 1/3지점 9위로 상대 골문에 가까워질수록 점유율이 대폭 하락했다. 페널티박스 안으로 연결된 패스는 리그 최하위였다. 성남은 상대지역 및 공격방향 1/3지점 점유율이 모두 리그에서 가장 낮았다. 공격과 상관없이 자기 진영에서 볼을 돌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뜻이다.

전체 점유율이 고르게 공격에 반영된 팀은 수원과 아산무궁화였다. 수원은 전체, 상대지역, 공격 1/3지점 점유율이 리그 3위, 2위, 2위였다. 페널티박스 안으로 연결된 패스와 유효슈팅, 팀 득

점도 모두 최종 순위와 같은 3위였다. 챌린지에서 최종 순위 3위로 시즌을 마친 아산무궁화의 점유율 데이터도 고르다. 전체 점유율은 리그 2위였고, 상대지역과 공격방향 1/3지점 점유율은 리그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당 패스도 아산무궁화가 리그 1위를 차지했다는 점과 연계하면, 전 영역에서 볼을 운반하는 작업(=볼플레이)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영역별 점유율의 차이는 팀의 약점 파악에 힌트를 줄 수도 있다. 클래식의 광주를 보자. 전체 점유율은 리그 10위에 그쳤다. 하지만 상대지역 점유율 6위, 공격방향 1/3지점 점유율은 리그 3위를 기록했다. 페널티박스 안으로 연결된 패스

숫자도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광주의 팀 득점(33골)은 리그 11위로 저조했다. 슈팅 가능 지점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도 슈팅 때릴 수 있는 장면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광주는 슈팅 시도 9위, 유효슈팅 10위에 그쳤다. 챌린지에서는 FC안양이 안타까웠다. 상대지역 및 공격방향 1/3지점 점유율이 리그 3위, 2위로 나타난 것은 물론, 페널티박스 안으로 연결된 패스 1위, 유효슈팅 4위로 공격을 활발하게 펼쳤으면서도 팀 득점은 리그 8위(40골)로 저조했다. 공격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정교함을 보탠다면 성적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챌린지 챔피언 경남은 선이 굵은 축구를 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점유율 면에서 모두 리그 6-7위권이었으며, 패스에서는 최하위권이었다. 하지만 유효슈팅과 득점에서 전부 리그 1위를 기록했다. 말경이라는 발군의 최전방 해결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상대 골문에 최대한 빨리 접근한 뒤에 정확한 슈팅으로 공격을 마무리한다는 축구의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따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포메이션과 승률의 상관성: BACK 3 vs BACK 4

현대 축구는 전술 싸움이다. 같은 숫자 안에서도 포지션 파괴 혹은 위치 이동을 통한 재창조가 일어난다. 한 시즌 동안 팀별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포메이션을 정리했다. 백스리와 백포에 뚜렷한 경계가 생기면서도, 전술적으로 다양한 변형이 일어났다. 포메이션으로 드러난 기록만으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클래식과 첼린지 공히 하위권일수록 다양한 포메이션과 포지션 이동이 일어났다. 한정된 자원으로 가용 전술을 극대화하기 위한 나름의 생존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 표기한 승률은 주 포메이션을 활용했을 때의 승률을 의미함. **포메이션 데이터는 경기 리포트 기준)

전북현대모터스

주 포메이션 | 4-1-4-1 (10회)
4-1-2-3 (10회)

주 포메이션 승률 **85%** / **70%**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2	0	0
3-5-2	2	4	2
4-1-4-1	8	1	1
4-2-3-1	3	2	0
4-1-2-3	6	2	2
4-4-2	1	0	2

제주유나이티드

주 포메이션 | 3-5-2 (26회)

주 포메이션 승률 **67%**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2	4	0
3-5-2	16	3	7
4-2-3-1	0	1	3
4-1-2-3	1	0	0
4-4-2	0	1	0

포항스틸러스

주 포메이션 | 4-2-3-1 (16회)

주 포메이션 승률 **44%**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5-2	0	0	1
4-1-4-1	3	2	2
4-2-3-1	6	2	8
4-1-2-3	6	3	5

대구FC

주 포메이션 | 3-4-3 (21회)

주 포메이션 승률 **54%**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6	10	5
3-5-2	5	4	6
4-2-3-1	0	0	1
4-1-2-3	0	0	1

수원삼성블루윙즈

주 포메이션 | 3-5-2 (27회)

주 포메이션 승률 **67%**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3	3	4
3-5-2	13	10	4
4-1-2-3	1	0	0

울산현대

주 포메이션 | 4-1-2-3 (25회)

주 포메이션 승률 **62%**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1	0	0
3-5-2	0	0	1
4-1-4-1	1	3	1
4-2-3-1	1	0	0
4-1-2-3	12	7	6
4-4-2	2	1	2

인천유나이티드

주 포메이션 | 3-4-3 (16회)

주 포메이션 승률 **44%**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3	8	5
3-5-2	0	1	0
4-1-4-1	2	4	3
4-2-3-1	0	1	1
4-1-2-3	2	4	4

전남드래곤즈

주 포메이션 | 4-1-2-3 (16회)

주 포메이션 승률 **53%**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0	1	5
3-5-2	0	0	3
4-1-4-1	1	0	0
4-2-3-1	0	6	4
4-1-2-3	7	3	6
4-4-2	0	1	1

FC서울

주 포메이션 | 4-1-2-3 (15회)

주 포메이션 승률 **77%**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2	3	3
3-5-2	0	0	1
4-1-4-1	2	3	2
4-2-3-1	2	2	2
4-1-2-3	9	5	1
4-4-2	1	0	0

강원FC

주 포메이션 | 4-2-3-1 (15회)

주 포메이션 승률 **43%**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3	0	3
3-5-2	0	1	3
4-1-4-1	1	0	1
4-2-3-1	3	7	5
4-1-2-3	5	1	3
4-4-2	1	1	0

상주상무

주 포메이션 | 4-1-2-3 (15회)

주 포메이션 승률 **47%**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1	1	2
3-5-2	0	1	3
4-1-4-1	0	0	3
4-2-3-1	1	2	5
4-1-2-3	4	6	5
4-4-2	2	1	1

광주FC

주 포메이션 | 4-1-2-3 (13회)

주 포메이션 승률 **27%**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0	1	4
3-5-2	3	3	2
4-1-4-1	0	4	2
4-2-3-1	0	1	4
4-1-2-3	2	3	8
4-4-2	1	0	0



주 포메이션 | 4-4-2 (16회)



주 포메이션 승률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5-2	0	1	0
4-1-4-1	1	0	0
4-2-3-1	8	3	1
4-1-2-3	4	1	1
4-4-2	11	2	3



부산아이파크

주 포메이션 4-4-2 (11회)

주 포메이션 승률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1	0	0
3-5-2	8	2	0
4-1-4-1	2	0	0
4-2-3-1	4	1	1
4-1-2-3	0	6	1
4-4-2	5	2	4



아산무궁화

주 포메이션 4-2-3-1 (15회)

주 포메이션 승률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4	3	3
3-5-2	1	0	0
4-1-4-1	0	0	1
4-2-3-1	7	3	6
4-1-2-3	0	1	2
4-4-2	4	2	1



성남FC

주 포메이션 4-4-2 (15회)

주 포메이션 승률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1	1	3
4-1-4-1	0	1	1
4-2-3-1	5	6	1
4-1-2-3	0	1	2
4-4-2	7	5	3



부천FC1995

주 포메이션 3-4-3 (20회)

주 포메이션 승률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8	4	8
3-5-2	2	0	1
4-2-3-1	3	2	1
4-1-2-3	1	0	2
4-4-2	1	1	0



수원FC

주 포메이션 4-1-2-3 (12회)

주 포메이션 승률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0	0	1
4-1-4-1	0	2	3
4-2-3-1	6	2	3
4-1-2-3	4	5	3
4-4-2	1	3	3



FC안양

주 포메이션 4-4-2 (14회)

주 포메이션 승률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1	0	3
3-5-2	0	1	3
4-2-3-1	1	5	4
4-1-2-3	2	1	2
4-4-2	6	2	6



서울이랜드FC

주 포메이션 3-4-3 (20회)

주 포메이션 승률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6	8	6
3-5-2	1	1	2
4-2-3-1	0	1	1
4-1-2-3	0	3	6
4-4-2	0	1	0



안산그리너스FC

주 포메이션 3-5-2 (13회)

주 포메이션 승률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2	3	7
3-5-2	3	4	6
4-1-4-1	0	0	1
4-2-3-1	1	2	2
4-1-2-3	0	2	0
4-4-2	1	1	1



대전시티즌FC

주 포메이션 4-2-3-1 (15회)

주 포메이션 승률



전적 비교

포메이션	승	무	패
3-4-3	1	0	2
3-5-2	0	1	0
4-1-4-1	1	0	1
4-2-3-1	3	4	8
4-1-2-3	1	1	4
4-4-2	0	5	4

MEN IN NU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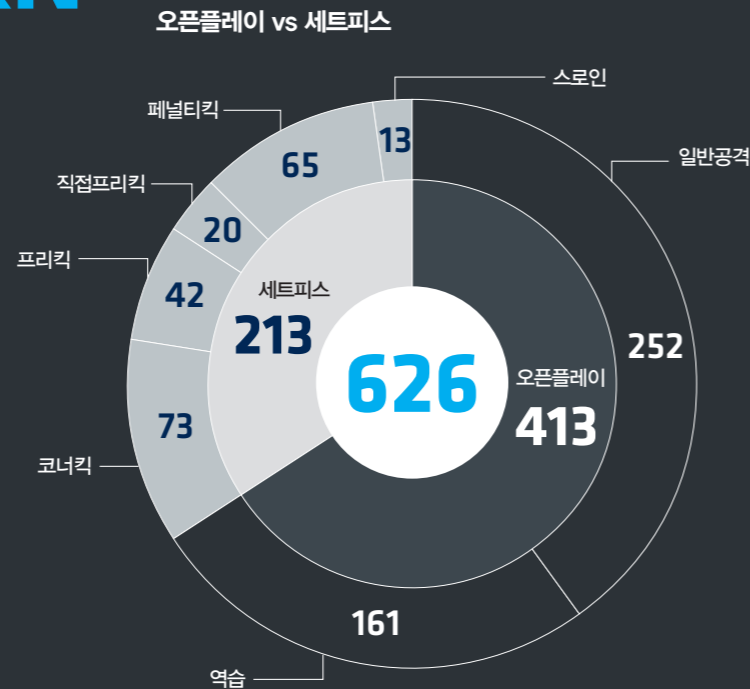
2017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는 총 626골이 나왔다. 오픈플레이에서 413골(66%), 세트피스에서 213골(34%)가 각각 기록되었다. 포커스를 좁히면 구단별로 크고 작은 차이가 나타난다.

GOAL PATTERN

골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2016시즌보다 총 득점에서 9골이 늘었다. 오픈플레이에서 11골이 줄었으나 세트피스 득점이 20골이나 늘어난 덕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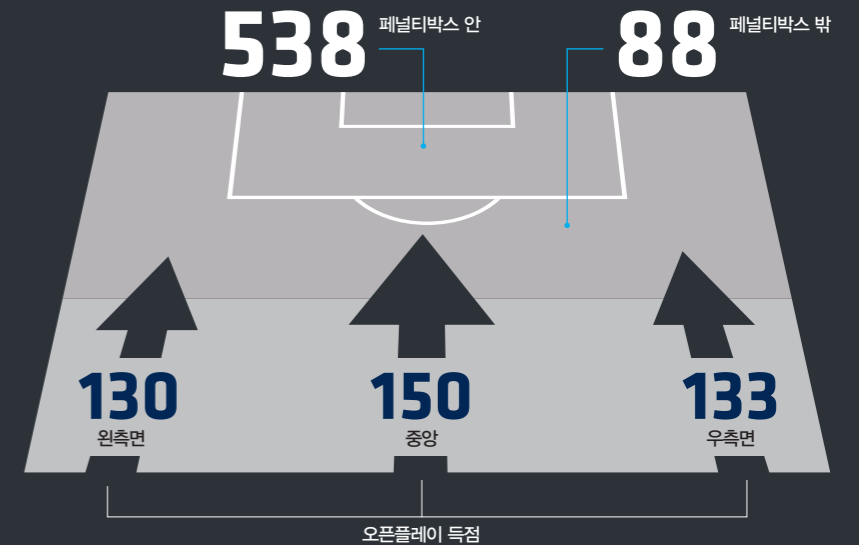
2017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는 총 626골이 나왔다. 오픈플레이에서 413골(66%), 세트피스에서 213골(34%)가 각각 기록되었다. 포커스를 좁히면 구단별로 크고 작은 차이가 나타난다. 전북은 오픈플레이 득점 2위, 세트피스 득점 1위를 차지해 우승팀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직접 프리킥 득점(6골)도 리그에서 가장 많았는



전후반전 득점 분포

순위	팀	득점	전반전	후반전
1	전북	74	37 (50%)	36 (50%)
2	포항	64	20 (31%)	44 (69%)
3	수원	63	28 (44%)	35 (56%)
4	제주	60	26 (43%)	34 (57%)
5	강원	59	20 (34%)	39 (66%)
6	서울	56	24 (43%)	32 (57%)
7	전남	53	23 (43%)	30 (57%)
8	대구	50	20 (40%)	30 (60%)
9	울산	42	17 (40%)	25 (60%)
10	상주	41	18 (44%)	23 (56%)
11	광주	33	16 (48%)	17 (52%)
12	인천	32	9 (28%)	23 (72%)
평균		52	22 (41%)	31 (59%)

공격 방향 및 득점 영역 (골)



데(서울, 포항과 동률), 2016시즌 1골에 그쳤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즌 초반 왼발 직접 프리킥을 자주 성공시킨 김진수의 영입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리그 2위를 차지한 제주의 세트피스 수확은 다소 아쉬웠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22골)을 차지했는데, 2017시즌에는 18골(리그 5위)로 줄었다. 코너킥 득점이 11골에서 6골로 줄어든 부분이 커 보인다. 포항스틸러스는 특이했다. 올 시즌 총 득점 64골 중 47골(73%)을 오픈플레이에서 기록해 리그에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세트피스 득점 수가 리그 7위(17골)에 그쳤다. 광주와 비교하면 포항의 불균형이 드러난다. 광주의 오픈플레이 득점 수는 포항보다 무려 30골이나 적었는데, 세트피스 득점 차이는 1골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울산도 재미있다. 오픈플레이 득점(30골)과 세트피스 득점(12골)이 전부 리그 평균 이하였지만, 시즌 내내 선두권 경쟁에 참여한 끝에 AFC챔피언스리그 출전권까지 따냈다. 오픈플레이 득점을 일반공격과 역습으로 나눠봤다. 리그 평균은 61-39 비율로 나타났다.

전북은 역습 득점(22골)도 가장 많았는데, 리그 상황이 많았던 만큼 만회골을 위해 전진하는 상대의 뒷공간을 노릴 기회를 자주 잡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 공격보다 역습에서 더 많은 골을 기록한 팀은 리그에서 전남이 유일했다. 전남의 역습 득점은 19골로 전북(22골)에 이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일반공격에서 리그 하위권인 16골에 그쳐 아쉬웠다. 역습에 집중한 스타일과 일반 공격의 무딘 창끝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골을 넣은 공격 방향의 리그 전체 분포는 좌우 측면과 중앙 영역이 고르게 나타났다. 중앙 영역에서 공격을 집중한 팀은 전북과 대구였다. 두 팀은 공격 방향 분포에서 좌우 측면을 합친 것보다 중앙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중앙에서 직접 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신형민, 이재성, 세징야 등)를 보유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광주와 포항은 측면에 집중했다. 광주의 공격 방향은 좌우 측면에서 각각 41%로 나타나 중앙 공격(18%)보다 뚜렷이 높았다. 포항의 공격 방향도 중앙보다 측면(74%)에 쏠렸다. 좌우 측면의 기울기가 가장 심한 팀은 수

원이었다. 염기훈과 김민우를 보유한 팀답게 수원의 공격 방향은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몰렸다. 페널티킥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은 강원이었다. 이근호, 김승용 등 영리한 공간 쇄도를 즐기는 공격수가 많은 팀임을 증명하듯이 페널티킥으로만 9골을 뽑아냈다. 실축도 한 번밖에 없어서 페널티킥은 강원의 득점 쌓기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포항은 페널티킥 흥년이었던 리그 38경기에서 얻은 4개 중 3개를 날린 결과, 페널티킥 득점이 1골에 그쳤다. 참고로 2016시즌 페널티킥 1골에 그쳤던 수원과 전남은 올 시즌 각각 6골과 5골을 기록하며 해당 부문 득점 수가 크게 늘었다. 시간대별 득점 분포에서는 후반전이 59%로 전반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승팀 전북은 전반반 득점이 37골로 동일하게 나타난 팀이 있는가 하면 인천처럼 전반(9골)과 후반(23골)의 득점력 차이가 큰 팀도 있었다. 후반전 득점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은 포항(44골)이었다. 리그 최소 후반 득점팀인 광주(17골)보다 2.5배 많은 숫자다.

ATTACKING

공격을 마무리하다

양동현의 분발로 부풀었던 3년 연속 국내 득점왕의 꿈을 조나탄이 막았다. 리그 경기당 0.76골이란 수치가 그의 득점력을 대변한다.

득점 (득점당 소요 플레이 수)

순위	이름	팀	득점	슛시도	유효슈팅	출전시간
1	조나탄	수원	22	109 (5.0)	43 (2.0)	2450 (111)
2	양동현	포항	19	115 (6.1)	47 (2.5)	3276 (172)
3	데안	서울	19	115 (6.1)	47 (2.5)	2644 (139)
4	주민규	상주	17	81 (4.8)	31 (1.8)	2613 (154)
5	롤리냐	포항	16	70 (4.4)	35 (2.2)	2985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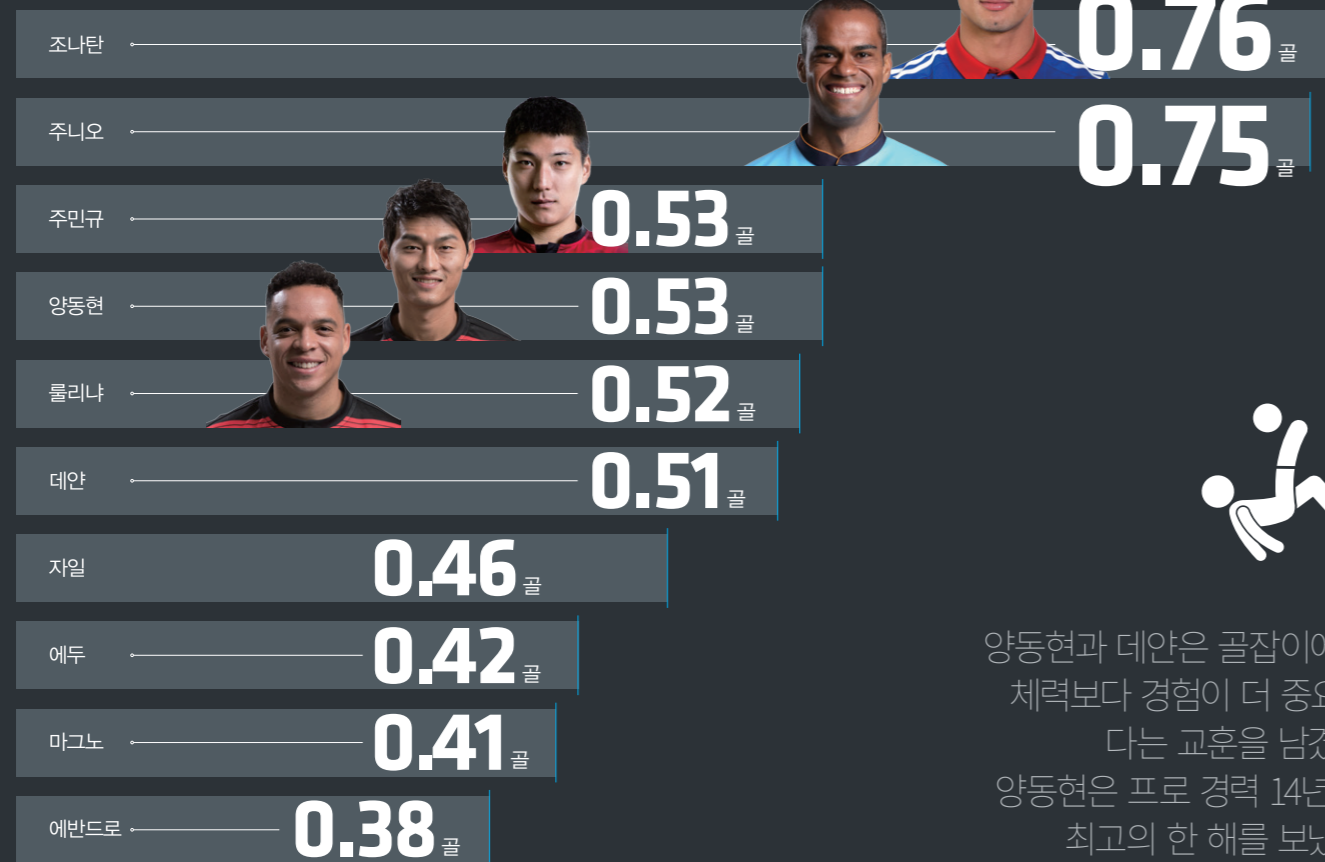
도움 (도움당 소요 플레이 수)

순위	이름	팀	도움	득점 관여	키퍼스	출전시간
1	손준호	포항	14	22 (1.6)	87 (6.2)	3258 (233)
2	윤일록	서울	12	23 (1.9)	88 (7.3)	3030 (253)
3	염기훈	수원	11	24 (2.2)	126 (11.5)	2941 (267)
4	이재성	전북	10	29 (2.9)	74 (7.4)	2476 (248)
5	이근호	강원	9	24 (2.7)	100 (11.1)	3412 (379)

전북 독주였던 우승 경쟁과 달리 공격수 부문에서는 다양한 공격수들이 실력을 뽐냈다. 득점왕은 수원의 '절대 원톱' 조나탄이었다. 부상 결장으로 리그 출전수가 29경기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20골 고지를 넘어 22골을 터트렸다. 조나탄은 득점 5걸 안에서 출전 경기와 시간이 가장 적었다. 하지만 4경기 연속 멀



경기당 득점



양동현과 데안은 골잡이에게 체력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양동현은 프로 경력 14년 중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티골 신기록을 작성하는 집중력으로 K리그 골잡이 경쟁을 평정했다. 경기당 득점이 0.76골에 달했다. 이 득점율을 부상 없이 리그 38경기에서 유지했다면 조나탄의 예상 득점은 28.8골이 된다. 1골당 유효슈팅이 2개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도 돋보인다. 골대 안으로 때리는 슛 둘 중 하나는 들어간다는 뜻이다. 양동현과 데안은 골잡이에게 체력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양동현은 프로 경력 14년 중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시즌 초반 득점 1위를 달렸을 뿐 아니라 막판까지 득점왕을 경쟁해 3년 연속 한국인 득점왕 탄생이란 희망을 줬다. 데안은 명불허전이였다. 2007년 데뷔 이후 K리그에서 뛴 9시즌을 전부 두 자릿수 득점으로 장식했다. 올 시즌 박주영, 윤주태 등과 로테이션되는 상황 속에서도 19골로 FC서울 팬들을 만족시켰다. 두 선수는 슛 시도(115)와 유효슈팅(47) 부문에서 똑같은 기록을 남긴 점도 흥미롭다. 상주상무의 주민규가 던진 메시지는 '챌린지라

고 무시하지 마'였다. 챌린지 소속 서울이랜드를 잠시 떠나 동지를 둔 상주에서 17골이나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슈팅 숫자가 3위권보다 크게 적었지만, 득점 수 차이는 2골밖에 되지 않았다. 1득점당 소요 시간(154분)에서는 양동현(172분)에 앞섰고, 유효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은 상위 다섯 명 중에서 가장 높았다. 득점 상황에서 결정력이 가장 좋았다는 뜻이다. 도움 부문 경쟁도 막판까지 치열했다. 염기훈과 윤일록으로 좁혀지는 듯했던 경쟁 구도에서 포항의 손준호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손준호는 득점에 관여했던 공격 22회에서 도움 14개를 기록해 고효율을 자랑했다. 손준호가 포함되는 공격에서 그만큼 득점 확률이 높았다는 뜻이다. 키퍼스는 평균 6.7개당 1개 골로 도움이 기록되었다. 3년 연속 도움왕을 노렸던 염기훈은 아쉽게 3위에 그쳤지만, 좋은 공격 장면을 창출한 키퍼스 숫자가 126개로 도움 5걸 중에서 단연 많았

다. 팀 동료인 조나탄의 결정력을 생각하면 재차 브라질 찰공의 발목 부상 혹은 백업 스트라이커 부재가 아쉬워진다. 시즌 MVP 이재성의 활약은 '득점 관여' 부문에서 잘 나타난다. 이재성은 리그 28경기에서 득점 과정에 총 29차례나 관여해 리그 1위를 기록했다. 출전했던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는 과정에서 이재성이 역할을 담당했다는 뜻이다. 리그 30경기 이하 출전에서 많은 공격포인트(8골 10도움)가 기록된 것은 당연했다. 강원 살림꾼 이근호를 빼놓을 수 없다. 도움 5걸 중에서 출전시간이 가장 많았다. 이재성과 함께 키퍼스도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직접 넣은 골(8)도 나쁘지 않았지만, 몸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대 페널티박스 부근에서 빈번하게 공격 상황을 만들어 팀을 이끌었다. 공교롭게도 키퍼스 숫자에서 염기훈과 이근호가 가장 많아 득점뿐 아니라 도움 면에서도 경험의 무게를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PLAYMAKING

플레이를 만든다

막판까지 이어진 도움왕 경쟁에서 손준호가 마지막에 웃었다. 팀컬러를 말해주듯이 손준호와 주세종이 리그 최다 패스 1, 2위를 차지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축구도 마찬가지다. 득점의 뒤에 공격을 만드는 설계자가 있다. 그들의 도구는 다양하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패스, 수비 조직을 허무는 드리블, 페널티박스 안 동료의 앞으로 정확히 배달되는 크로스 등이다.

2017시즌 손준호의 도움왕 등극에는 엄청난 패스가 있었다. 리그 35경기에 출전하면서 손준호는 패스를 무려 2625개를 시도해 2204개를 성공시켰다. 경기당 평균 패스 시도 73개, 성공 61개의 기록은 리그 전체에서 압도적 1위였다. 이번 시즌 패스 시도 수가 2000개를 넘긴 선수는 3명이었는데, 개중에서 성공 개수까지 2000개가 넘는 선수는 손준호가 유일하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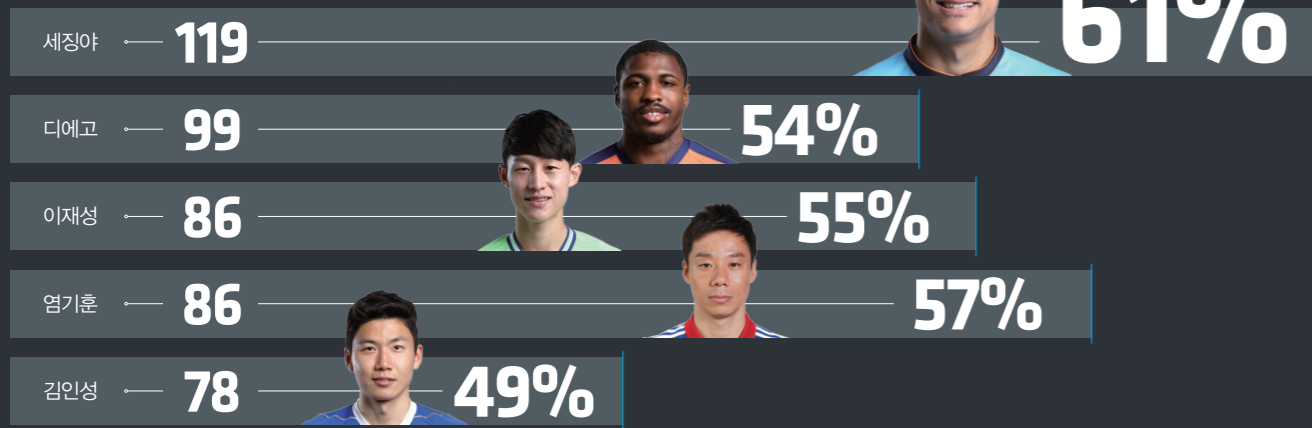
패스 마스터즈 (경기당)

순위	이름	팀	패스 시도	성공	성공률
1	손준호	포항	2625 (73)	2204 (61)	84%
2	주세종	서울	2267 (68)	1928 (58)	85%
3	오스마르	서울	2049 (59)	1752 (51)	86%
4	배슬기	포항	1939 (53)	1640 (45)	85%
5	이명재	울산	1905 (57)	1546 (46)	81%

상대를 떨게 하는 패스 (경기당-시도/성공)

순위	이름	팀	페널티박스 안으로 패스	크로스	키패스
1	염기훈	수원	338/156 (10/4.8)	129/40 (3.9/1.2)	126/61 (3.9/1.9)
2	김진수	전북	335/172 (12/6)	133/48 (4.6/1.7)	55/35 (1.9/1.2)
3	최종환	인천	241/134 (8/4.5)	50/16 (1.7/0.5)	40/23 (1.3/0.7)
4	손준호	포항	231/106 (6/2.9)	25/11 (0.7/0.3)	87/38 (2.4/1)
5	김영욱	전남	228/112 (8/3.7)	56/19 (1.9/0.6)	60/27 (2/0.9)

드리블 성공



위인 주세종보다 276개나 많았다. 패스 시도 5 걸 안에는 포항의 센터백인 배슬기(1939개)가 있었다. 포항의 빌드업이 골키퍼에서 시작해 배슬기와 손준호를 거쳐 최전방 공격진으로 연결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서울의 볼 운반 줄기는 주세종과 오스마르였다. 패스 성공이 각각 1928개와 1752개로 리그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FC서울의 경기를 통해서도 두 선수의 팀플레이 관여도가 높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서울은 최전방 스트라이커 데얀이 하프라인 근방까지 내려오는 '가짜 9번'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최후방부터 최전방까지 짧고 빈번한 패스로 플레이를 만들어갔다. 객관적 전력이 떨어지는 팀에서는 패스 관련 수치의 상위권이 대부분 중앙수비수 포지션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클래식에서 패싱게임을 추구하는 포항과 서울의 경기가 어떻게 다른지 쉽게 알 수 있다. 상대팀의 페널티박스 안으로 줄기차게 패를 공급하며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플레이메이커의 주요 임무다. 2017시즌을 통틀어 이 일을 가장

잘 수행한 선수는 수원의 기동 염기훈이었다. 염기훈은 경기당 10개의 패스를 상대 페널티박스 안으로 보내 평균 4.8개를 동료에게 연결시켰다. 키패스 부문에서도 염기훈은 리그 1위(126개)를 차지해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재입증했다. 크로스 성공 부문에서도 리그 2위(40개)를 기록한 것이 보너스처럼 보일 정도로 염기훈의 공격 설계 능력은 압권이었다. 전북의 레프트백 김진수의 데이터도 돋보인다. 국내 복귀 첫 시즌부터 김진수는 성실한 오버래핑과 날카로운 원발 킥 능력으로 진가를 발휘했다. 페널티박스 안으로 투입한 패스 시도가 염기훈보다 겨우 3개 부족(335개)했을 정도로 상대 수비를 열심히 두들겼다. 페널티박스 안에 위치하는 동료들(김신욱, 에두, 이동국)의 피지컬이 월등한 덕분인지 김진수는 페널티박스 투입에 성공한 패스 숫자가 염기훈보다 16개 많았다(172개). 매 경기 패스 6개씩 페널티박스 안에 있는 동료에게 정확히 연결시킬 수 있는 레프트백은 그리 흔하지 않다. 축구에서 가장 전통적 플레이는 바로 드리블이

다. 패스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 공을 상대팀 문전으로 운반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2017시즌 K리그 최고의 드리블러는 대구 공격의 핵심 세징야였다. 세징야는 출전 수가 27경기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블 시도와 성공 수치가 리그에서 가장 많았다. 총 195회의 드리블을 시도해서 개중 61%에 해당하는 119차례를 성공했다. 경기당 드리블 성공 수가 리그에서 가장 많았던 선수는 강원의 디에고였다. 경기당 드리블 성공 4.8개를 기록했는데, 직접 마무리한 득점 수도 13골이었으므로 강원이 공격을 풀어감에 있어서 디에고의 개인 능력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선수 중 드리블이 가장 치명적이었던 선수는 전북의 이재성과 수원의 염기훈이었다. 시도 숫자는 이근호(179회)보다 적었지만, 성공 횟수가 86회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당 드리블 성공 횟수가 가장 많았던 국내 선수는 전남의 왕여허용준이었다(3.7회).

HARD WORKING

중심을 잡다

K리그 최고의 투수는 오스마르였다. 챔 피언 전북의 투혼은 '작은 전사' 최철순을 통해 발현되었다. 신형민도 단단했다.

축구는 부딪힘이다. 힘과 힘이 충돌해 승부를 가른다. 중원 싸움이 중요한 이유다. 허리에서 굽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전사야말로 승자의 기본요소다. 2017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도 '숨 은 영웅'은 열심히 헌신했다. 상대와 직접 부딪 히는 태클 부문부터 보자. FC서울의 오스마르 가 안방마님으로 불리는 이유는 따로 있지 않 다. 리그 30경기에서 오스마르는 태클 160회 를 시도해 리그 최다를 기록했다. 2016시즌(185 개)에도 태클왕이었으니 FC서울에서 오스마르 의 헌신은 부연 설명이 필요없다. 다음으로 태클 을 자주 시도한 주인공은 전북의 라이트백 최철 순이다. 공격 빈도가 높은 팀인 만큼 전북의 풀 백들은 상대 진영에 자주 진입한다. 그런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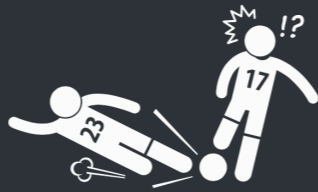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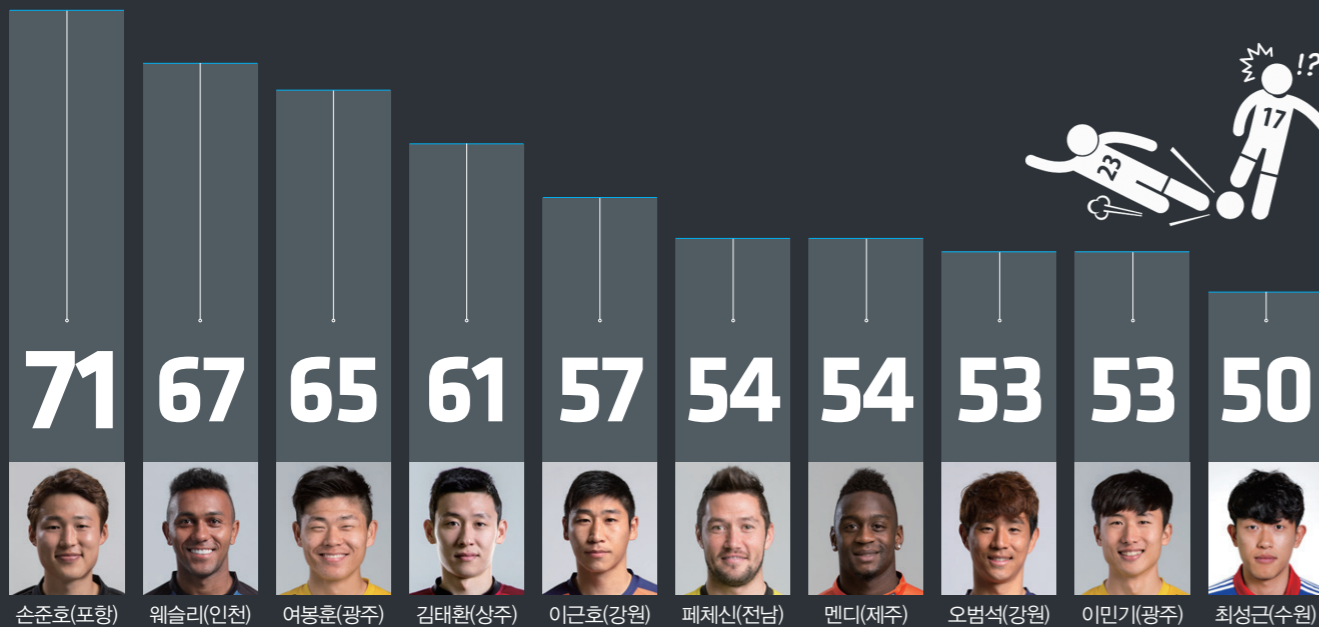
태클 및 경합

순위	이름	팀	구분	태클	성공(%)	공격형 경합	성공(%)
1	오스마르	서울	시즌	160.0	99.0 (62%)	147.0	88.0 (60%)
			경기당	4.6	2.9	4.3	2.6
2	최철순	전북	시즌	154.0	112.0 (73%)	164.0	88.0 (54%)
			경기당	4.1	3.0	4.4	2.4
3	무라라	포항	시즌	151.0	99.0 (66%)	95.0	65.0 (69%)
			경기당	6.0	4.2	4.0	3.0
4	손준호	포항	시즌	150.0	72.0 (48%)	239.0	115.0 (48%)
			경기당	4.1	2.0	6.6	3.1
5	한희훈	대구	시즌	148.0	102.0 (69%)	92.0	58.0 (63%)
			경기당	3.9	2.7	2.4	1.5

상대 진영 플레이

순위	이름	팀	상대진영 인터셉트	상대진영 볼 되찾음	상대진영 프리볼 잡기
1	신형민	전북	81	72	170
2	한석중	인천	65	37	106
3	이찬동	제주	60	44	112
4	본즈	광주	60	53	115
5	김민혁	광주	58	29	92

반칙왕



최철순의 태클 빈도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 다는 데이터는 그의 플레이스타일을 설명한다. 오 스마르보다 시도 수가 6회 적으나 성공 횟수는 112회로 10% 가량 많았다. 태클 성공률도 73% 로 톱5 순위표에서 가장 높았다. 공격 진영 경합 도 오스마르(147회)보다 높다(164회). 포항의 허리를 책임지는 무라라와 손준호가 그 뒤를 따랐다. 무라라는 태클 151회를 시도해 99회 상대를 제압했다. 손준호는 150회 시도에 72회 성공으로 나타났다. 손준호의 헌신은 독 보적이다. 리그에서 도움을 가장 많이 기록(14 개)한 공격 도우미가 태클 부문에서도 리그 4 위에 올랐다는 통계는 손준호의 가치를 입증한 다. 더군다나 손준호가 2017시즌 리그에서 가 장 많은 패스를 기록했다. 즉 상대 진영에서 벌 어지는 모든 상황에서 혁혁한 공헌을 남겼다는 뜻이다. 상대 진영에서 '파이트'를 실천한 선수들도 주목해야 한다. 전북의 수비형 미드필더 신형민은

상대 진영에서 알로란 활약을 펼쳤다. 상대 진 영 인터셉트가 리그에서 제일 많은 81회를 기 록했을 뿐 아니라 상대 진영에서 볼 소유를 되 찾은 횟수도 72회로 리그 1위를 기록했다. 공격 끊김 직후 최대한 빨리 볼을 되찾아 추가적 공 격을 가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고 풀이할 수 있 다. 상대 진영에서 프리볼을 확보한 횟수는 170 차례로 독보적이었다. 해당 부문 리그 2위인 FC서울의 주세종(130회)보다 무려 40회나 많 았기 때문이다. 상대팀들이 전북의 공격을 끊어 전진하려고 할 때마다 길목을 지키고 있던 신 형민에게 자주 걸렸던 셈이다. 공격을 몰아치는 전북의 '닥공' 스타일이 실전에서 가능하게 해 준 일등공신이 바로 신형민이었다. 상대 진영에서 프리볼을 잡는 상황에서 대부분 일어 난 반칙들이었으니 팀으로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를 웨슬리(인천, 67회)와 여봉 훈(광주, 65회)이 따랐다. 강원의 올라운드 공 격수 이근호도 반칙이 57개를 기록해 리그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숫자를 남겼다.

타났다. 공격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인천 의 화력을 생각하면 상대 진영에서 한석중이 남 긴 통계는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광주의 본즈 와 김민혁도 마찬가지다. 강등 운명을 맞이해야 했지만, 두 선수 모두 압박이 거센 상대 진영에 서 볼 소유를 되찾은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본즈와 김민혁은 상대 진영에서 인터셉트를 합 계 118회 기록했다. 볼 소유를 되찾은 합계도 82회였으니 두 선수가 광주의 공격을 지탱했다 고 말할 수 있다. 반칙을 칭찬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투쟁적 으로 뛰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부문에서 도 리그 1위는 손준호(71회)였다. 상대 진영에 서 공격을 하다가 끊기는 상황에서 대부분 일어 난 반칙들이었으니 팀으로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를 웨슬리(인천, 67회)와 여봉 훈(광주, 65회)이 따랐다. 강원의 올라운드 공 격수 이근호도 반칙이 57개를 기록해 리그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숫자를 남겼다.

DEFE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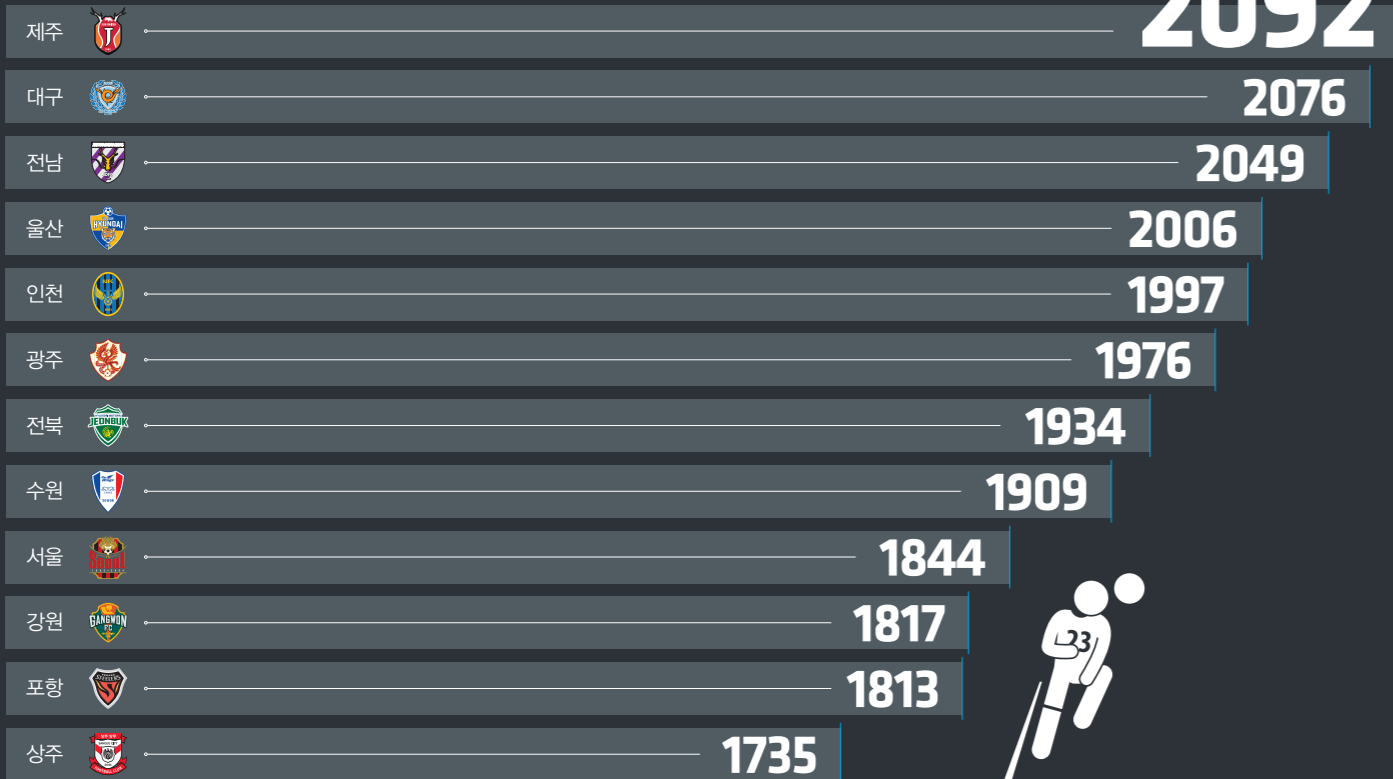
위험을 막다

한희훈과 오스마르가 발군이었다. 재미 있는 공격 축구로 사랑받은 제주가 리그 최다 인터셉트를 기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팀 전술의 출발점은 수비다. 안정적인 수비 구축이 팀 완성도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백스리 전술을 선택하는 팀이 많아지면서 수비수들의 개인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기도 했다. 수비형 경합 부문에서 2017시즌 최고는 FC서울의 오스마르였다. 총 467회 경합을 벌여 상대방으로부터 볼을 303회 따냈다.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을 오가면서 상대 공격수들과 심없이 충돌한 결과다. 오스마르는 공수를 합친 경합 부문에서도 614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

팀 인터셉트



수비 포지션 볼 경합

순위	이름	팀	구분	수비형 경합	성공(%)	공중볼 경합	성공(%)	경합	성공(%)
1	오스마르	서울	시즌	467.0	303.0 (65%)	243.0	167.0 (69%)	614.0	391.0 (64%)
			경기당	14.0	9.0	7.0	4.8	18.0	11.0
2	한희훈	대구	시즌	463.0	314.0 (68%)	222.0	144.0 (65%)	555.0	372.0 (67%)
			경기당	12.0	8.0	5.8	3.8	14.6	9.7
3	배슬기	포항	시즌	429.0	303.0 (71%)	290.0	205.0 (71%)	486.0	341.0 (70%)
			경기당	12.0	8.0	7.9	5.6	13.2	9.3
4	오범석	강원	시즌	395.0	301.0 (76%)	120.0	71.0 (59%)	414.0	239.0 (58%)
			경기당	11.0	9.0	4.1	2.5	14.3	8.2
5	구자룡	수원	시즌	388.0	256.0 (66%)	207.0	138.0 (67%)	460.0	308.0 (67%)
			경기당	13.0	8.6	6.9	4.6	15.4	10.3

볼 되찾음 & 인터셉트 (경기당)

순위	이름	팀	볼 되찾음	인터셉트
1	한희훈	대구	358 (9)	331 (9)
2	오스마르	서울	351 (10)	268 (8)
3	배슬기	포항	347 (9)	255 (7)
4	김민재	전북	317 (11)	240 (8)
5	곽광선	수원	304 (10)	238 (8)

당 성공은 11회 꼴이다.

수비형 경합 부문 2위는 대구의 주전 수비수 한희훈이었다. 총 463회 경합 중 314회를 성공했다. 한희훈의 파이팅 넘치는 수비는 대구의 리그 실점 6위(52골)와 승격 시즌 잔류 성공이란 두 가지 결실에 밑거름이 되었다. 포항의 배슬기가 그 뒤를 따랐는데 수비형 경합 부문 5걸 중에서 공중볼 경합에서는 수위를 차지했다. 특히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71%로 나타나 다섯 명 중에서 가장 높았다.

강원의 오범석은 수비형 경합 시도 395회 중 301회를 성공했다. 피지컬을 앞세운 몸싸움보다 기민함과 빠른 발을 활용해 일대일 맞대결에서 상대를 제압했다. 수비형 경합 성공률이 76%로 높게 나타난 이유다. 어니트 수원의 주전 센터백이 된 구자룡도 수비형 경합 부문에서 리그 수비수들 중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시도 388회 중 256회를 성공했다. 전체 경합 부문에서도 시도 460회 성공 308회로 수준급 데이터

를 남겼다.

상대 패스를 끊거나 소유권을 되찾는 능력도 수비수들에게 중요한 능력 중 하나다. 이 부문의 순위표도 수비형 경합과 비슷하게 형성되었다. 가장 많은 '볼 되찾음(ball recovery)'를 기록한 선수는 대구의 한희훈이었다. 2017시즌 동안 총 358회를 기록해 리그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인터셉트도 331회로 가장 많았다. 바로 뒤에 오스마르가 있다. 오스마르는 경기당 평균 10차례 볼 소유권을 되찾았고 상대 패스를 8번 끊어 FC서울의 점유 축구 운영을 도왔다. 포항의 배슬기도 빠지지 않았다. 볼 되찾음 횟수는 347회(경기당 9회), 인터셉트는 255회(경기당 7회)를 기록했다. 2017시즌 신인왕에 빛나는 전북의 김민재가 리그 4위에 올랐다. 어린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김민재는 유연한 신체 밸런스와 빠른 판단력으로 일대일 대결에서 상대의 볼을 빼앗는다. 볼 소유권을 되찾은 횟수는 총 317회였고, 패스를 끊어 소유권을 획득한 횟수

는 240회였다. 구자룡과 함께 수원의 중앙 수비를 책임지는 곽광선이 볼 되찾음 304개로 리그 5위에 이름을 올렸다. 몸싸움을 즐기는 센터백의 전형적 플레이스타일을 지녔지만, 인터셉트 횟수도 238회로 상위권이었다.

팀 전체의 인터셉트 기록을 살펴봤다. 2017시즌 가장 많은 인터셉트를 기록한 팀은 제주였다. 총 2092회를 기록했다. 활발한 공격력도 좋았지만, 상대의 패스 줄기를 끊어내는 능력도 탁월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뛰기로 소문난 대구가 인터셉트 2076개로 리그 2위를 차지했다.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박태홍을 부상에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수비진에서 안정을 유지해내는 수완을 발휘했다. 가장 적은 인터셉트는 상주였다. 총 1735회를 기록해 1위 제주보다 300개 이상 적었다. 배슬기와 손준호가 각종 수비 관련 부문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포항은 팀 전체 데이터에서 활약 못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GOAL KEEPING

팀을 구하다

신화용이 시즌 유일한 0점대 실점을 기록하며 관록을 과시했다. 서울의 양한빈과 전남의 이호승은 방어뿐 아니라 패스 연결 능력을 뽐냈다.

그라운드에서 가장 외로우면서도 누구보다 책임감이 큰 포지션. 골키퍼다. 승부 결정선에 가장 가까이 서서 몸을 날리기 때문이다. 90분 내내 영웅과 역적의 외줄타기를 버텨야 한다.

2017시즌 선방을 가장 많이 기록한 주인공은 강원 이범영이었다. 리그 골키퍼 최다 출전수인 36경기에서 선방 53개를 기록했다. 매 경기 실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슈트 1.47개를 막은 꼴이다. 허용한 슈팅(441개) 중 58실점을 내줘 실점 1골당 허용 슈팅 수는 7.6개였다. 즉, 상대 팀은 이범영이 지키는 강원 골문을 향해 유효 슈팅을 7.6개 때려야 1골을 뽑을 수 있었다.

리그 선방 2위는 전남의 이호승이었다. 리그 32경기에서 선방 48개를 기록했다. 자신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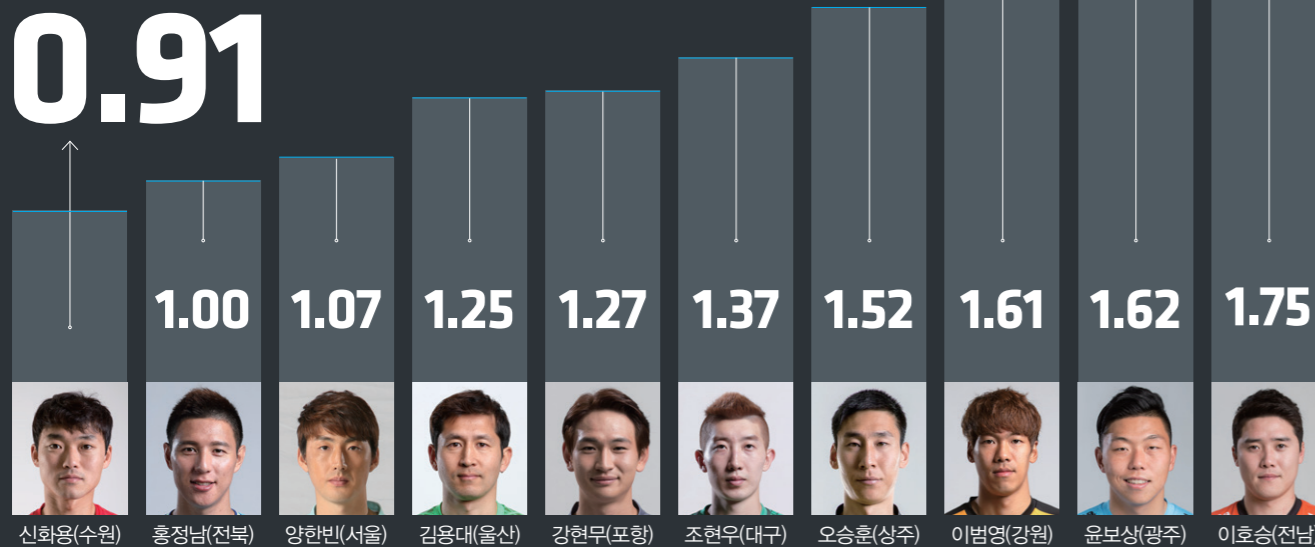
골키퍼 선방

순위	이름	팀	선방	실점	슈트 허용	실점당 슈트
1	이범영	강원	53	58	441	7.6
2	이호승	전남	48	56	435	7.8
3	조현우	대구	47	48	371	7.7
4	강현무	포항	39	33	320	9.7
5	양한빈	서울	35	29	309	10.6

경기당 패스 성공 및 성공률

순위	이름	팀	장거리 (41m 이상)		전체	
			성공	성공률	성공	성공률
1	신화용	수원	13.3	80%	20.8	85%
2	양한빈	서울	12.8	77%	19.6	83%
3	이호승	전남	13.0	72%	22.4	79%
4	이범영	강원	11.3	71%	19.0	79%
5	조현우	대구	11.2	70%	18.0	77%

경기당 실점 (리그 20경기 이상 출전자 기준)



날아온 슈트 441개 중에서 58실점을 허용해 실점당 슈트는 7.8개로 이범영보다 높게 나왔다. '시즌 베스트XI'를 수상한 조현우는 선방 3위, 실점당 슈트 4위를 각각 기록했다. 실점당 슈트가 가장 많았던 철벽 골키퍼는 FC서울의 양한빈이었다. 상대팀 공격수들은 양한빈을 향해 유효 슈팅만 10.6개를 때려서 겨우 1골을 얻을 수 있었다. 포항의 강현무는 리그 출전 수가 26경기로 비교적 적었지만, 선방 39회로 활약했다. 실점당 허용 슈팅 수도 9.7개로 나타나 뛰어난 슈트 토폭 능력을 선보였다.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의 '볼 플레이 능력'이 점점 중시된다. 골키퍼를 포함해 팀의 첫 번째 패스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2017시즌 K리그의 골키퍼 포지션에서 패스 관련 통계를 뽑아봤다. 장거리 패스를 가장 많이 시도한 골키퍼는 전남의 이호승이었다. 617개 중 444개를 연결시켜 패스 성공률이 72%로 나타났다.

총 패스 시도 숫자에서도 이호승은 리그 골키퍼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수비수들과 빈전하게 볼을 주고 받으며 뛰었음을 알 수 있다. 장거리 패스가 가장 정확했던 골키퍼는 포항에서 수원으로 이적해 첫 시즌을 보낸 신화용이었다. 장거리 패스 568개 중 456개를 동료에게 연결시켜 성공률이 80%를 찍었다. 아웃필더의 패스 성공률에 비견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 신화용의 킥 정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신화용은 모든 패스 성공률도 85%로 매우 높게 나왔다. 라이벌 FC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출전 기회를 얻었던 양한빈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다. 장거리 패스 시도에서 리그 5위, 성공률 2위를 각각 기록했다. 사실상 첫 풀시즌에서 남긴 기록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양한빈의 각종 통계는 리그 상위급이었다. 경기당 실점 부문에서는 수원의 신화용이 리그 최고의 '철벽 방어' 타이틀을 차지했다. 신화

용은 리그 33경기에 출전해 실점을 30골 허용함으로써 0점대 실점을 기록했다. 리그 20경기 이상 출전자 중에서 0점대 실점은 신화용이 유일하다. 전북의 홍정남이 경기당 1실점으로 뒤를 따랐고, 서울의 양한빈이 한 골을 약간 넘기고 있다(1.07실점). 선방, 실점당 슈트 부문에서 리그 정상급 수치를 나타냈던 이범영과 이호승, 조현우 등은 경기당 실점 통계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객관적 전력상 공격보다 수비 빈도가 높은 경기를 자주 치른 탓으로 풀이된다. 이호승의 경기당 실점은 1.75골, 이범영은 1.61골, 조현우는 1.37골이었다. 상대 공격수들에게 슈팅을 많이 허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인의 선방 능력과 상관없이 경기당 실점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덕분에 슈트 토폭 능력이 돋보였다고도 할 수 있는 점이 골키퍼 포지션이 품은 아이러니다.

PLAYER OF THE YEAR - CLASSIC

이재성

득점과 도움뿐 아니라 득점 관여 면에서 리그 최다를 기록하며 시즌 MVP의 이유를 정의했다. 공격 포지션에서 많은 태클을 기록했을 만큼 헌신적이기도 했다.

2017시즌 MVP는 득점왕 조나탄이나 도움왕 손준호가 아닌 전북의 플레이메이커 이재성이었다. 이번 시즌 전북의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이재성의 개인 공격 기록은 8골 10도움이었다. 득점 수가 2016시즌(3골)보다 리그 4경기를 덜 뛰고도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도움은 하나 줄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10개)를 채웠다. 득점은 19위, 도움은 4위, 둘을 합친 공격포인트에



패스 성공률

82%

드리블 성공

3.1 경기당

전체 86

공격 진영 34

패스 성공

1196

상대 진영 769

공격 진영 544

키패스 38

특점 관여



8 10 29

골 도움 득점 관여

40%

팀 득점 비중

현신

순위	이름	볼 경합 시도	성공(%)	수비형 경합 시도	성공(%)	태클 시도	성공(%)
1	이재성	595	277 (47%)	215	107 (50%)	127	69 (54%)
2	신형민	517	321 (62%)	405	245 (60%)	125	67 (54%)
3	최철순	513	321 (63%)	349	233 (67%)	154	112 (73%)
4	김진수	479	267 (56%)	268	159 (59%)	114	70 (61%)
5	김민재	472	335 (71%)	386	273 (71%)	95	49 (54%)

서는 7위였다. 무엇보다 골을 넣은 팀 공격 과정에 관여한 횟수가 인상적이다. 총 29회로 주민규(상주), 양동현(포항)과 함께 리그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의 시즌 총 득점은 73골이었다. 이재성이 팀 득점의 40%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이다. 경쟁자들에 비해 출전 수(29경기)가 적었으니 출전하는 매 경기에서 1골 이상 득점에 관여하면서 팀 공격의 주인공 역할을 해냈다는 뜻이다. 직접 관여한 경기당 공격포인트로 따지면 경기당 0.64개가 된다. 인천(32골)과 광주(33골)의 팀 득점력과 비교하면 이재성의 공격 관여 기록이 얼마나 높았는지 잘 알 수 있다. 패스와 드리블 부문 통계에서도 이재성의 공격 성향을 알 수 있다. 이재성의 패스 시도는 총 1473개였는데 개중 67%에 해당하는 986개가 상대 진영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패스를 압박이 심한 상대 진영에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성의 전체 패스 성공률은 82%로 높게

나왔다. 성공 횟수를 보면 상대 진영 패스 성공이 769개, 공격 진영(어태킹서드)에서 544개로 나타났다.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는 키패스는 총 38개를 동료에게 성공적으로 연결시켰다. 드리블에서도 과감성이 돋보였다. 드리블 시도 156회 중에서 64회가 공격 진영 드리블 시도였다. 페널티박스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어태킹서드에서 드리블은 성공 즉시 결정적 득점 기회를 만들기를 의미한다. 이재성은 어태킹서드 영역에서 드리블 시도 64회 중 34회를 성공시켰다. 워낙 상대 수비가 밀집한 영역이기에 성공률이 53%로 기록되었지만, 성공했을 때 효과를 생각하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공격 플레이에서만 돋보인 것이 아니다. 이재성은 팀 내에서 볼 경합 시도 횟수가 가장 많았다(595회). 영리한 패스와 드리블을 앞세워 공격을 주도하지만, 볼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상대 선수와 과감하게 부딪힌다는 뜻이다. 특히 전체 경합 중에서 수비형 경합이 36%(215회)로 기록되었다. 주활동 영역이 상대 진영인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팀 수비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김신욱은 경합 591회 중 수비형이 57회밖에 되지 않는다. 팀 내 태클 부문에서도 이재성은 1위 최철순(154회)에 이어 2위(127회)를 기록했다. 상대 전진을 막아야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신형민(125회)보다 2회 많았다. 팀 공격이 끊기는 즉시 볼을 되찾기 위해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태클을 빈번하게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팀의 득점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수비해야 할 때는 동료들과 함께 지켰다. 이재성이 2017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 가장 빛났다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았다.

PLAYER OF THE YEAR - CHALLENGE

말캉

말캉에서 시작해서 말캉으로 끝났던 2017 챌린지였다. 득점, 유효슈팅, 슛 시도, 득점 관여, 도움에서 모두 리그 1위를 기록하며 경남을 클래식으로 돌려놓았다.

챌린지 득점 순위

순위	이름	팀	득점	유효슈팅	슛 시도	득점관여	도움
1	말캉	경남	22	48	155	33	4
2	라울	안산	15	48	90	19	2
3	바그닝요	부천	12	33	78	19	1
4	이정협	부산	10	23	44	14	3
5	정원진	경남	10	25	86	33	10

2017시즌 K리그 '챌린지'라는 대회 명칭보다 '말캉'이란 공격수 이름이 더 유명하지 않았을까? 압도적 피지컬과 묵직한 슛, 오매불망 골문만 노리는 불도저식 플레이스타일, 결과로 나타난 각종 수치에 이르기까지 말캉은 2017년 챌린지 무대를 독점했다. 팀의 우승과 함께 그의 MVP 차지는 이견이 없었다. 득점 부문에서 혼자 20골 고지를 밟았다. 리그 32경기에서 22골(경기당 0.68골)을 뽑아 득점왕을 차지했다. 팀 동료 정원진(10골)과 함께 팀 득점(69골)의 46%를 차지하며 경남의 우승 질주 및 클래식 승격을 이끌었다. 사실상 경쟁자는 없었다. 득점 2위인 안산의 라울보다 7골 앞섰다. 유효슈팅 면에서 라울과 48개(경기당 1.48개)로 같았으나 말캉의 결정력이 더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말캉은 '난사왕'이라는 소리를 들을 법도 했다. 슈팅 시도가 무려 155개나 되었다. 해당 부문 2위도 라울이었는데 말캉보다 65개나 적다. 경남 내 슈팅 시도 2, 3, 4위에 해당하는 세 선수(정원진, 브루노, 정현철)의 기록을 모두 합친 167개와 비슷한 슛

을 말캉 혼자 도맡은 셈이다. 말캉은 팀이 골을 넣은 공격 과정에도 33회 관여했다. 본인의 득점(22골)과 도움(4개) 외에 7골을 간접적으로 도왔다. 팀 득점의 48%에 해당한다. 경기당 수치는 1.02골이다. 매 경기 골을 직접 넣거나 돕거나 혹은 관여했다는 뜻이다. 다른 데이터를 보면 말캉의 존재감이 더 커진다. 드리블을 보자. 리그 32경기에서 총 229회 드리블(경기당 7회)을 시도해 절반인 111회를 성공했다. 모두 리그 1위 기록이다. 상대와 볼 소유권을 다툰 경합 부문에서도 말캉은 돋보였다. 경합 전체로는 1184회, 경기당 36.6회로 리그 1위를 차지했다. 공격수답게 경합의 90%(1071회)가 공격형, 즉 상대 진영에서 기록되었다. 공격형 경합 성공은 리그 2위인 부천의 바그닝요(273회)보다 두 배 가까운 512회로 나타났다. 전방 깊숙이 박혀 혼자 싸우는 9번 공격수 역할도 성실하게 수행했다. 말캉은 공중볼 경합 시도 610회, 성공 331회 기록을 남겼다. 경기당 18.9회 시도 중 10회 성공으로 성공률은 54%였다. 공중볼 시도 및 성공 횟수도 전

부 리그 1위이다. 공중볼에서 볼을 따낸 횟수는 리그 2위(김효기, 132회)보다 두 배 넘게 많은 331회로 굳게 굳혀놓았다. 리그 2위와 3위를 합친 것보다 말캉이 많았을 정도다. 많은 기록을 말캉의 출전시간(2913분)으로 환산해봤다. 말캉은 18.9분마다 슛을 한 개씩 때렸다. 12.7분마다 상대 수비 조직을 향해 드리블을 시도했고, 2.5분마다 한 번 골로 상대와 볼 소유를 다투었다. 개중 공격형 경합은 2.7분마다 일어났고, 롱패스를 향해 몸을 던져 다투는 공중볼 경합은 4.8분마다 시도했다. 이처럼 말캉이 공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팀 동료들이 수비와 중원을 든든하게 지켜준 덕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캉 개인의 공격 헌신은 기록으로 나타나듯이 팀은 물론 리그 전체에서도 독보적이었다. 농구선수 출신다운 신체 밸런스와 공격 본능으로 뚝뚝 뚫은 말캉은 2018시즌 K리그 클래식 수비수들의 경계대상 1위가 될 수밖에 없다.



플레이 소요시간

공격 포인트

112.0 min

슛

18.9 min

드리블

12.7 min

경합

2.5 min

공격형 경합

2.7 min

공중볼 경합

4.8 min

TOP of the LEAGUE



ENTERTAINING

한눈팔 수 없는 그들

흥미진진한 경기 내용은 프로구단이 추구해야 할 덕목 중 하나다. 끊임 없는 경기, 과감한 공격성, 득점 수에 이르기까지 2017시즌 팬들을 가장 들썩이게 만든 팀은 어디였을까?



2017시즌 실제 인플레이 시간(Actual Playing Time)이 가장 길었던 팀은 제주였다. 제주의 경기에서는 평균 60분 19초 동안 플레이가 살아 있었다. 리그에서 두 번째로 APT가 길었던 팀이 포항으로 60분 10초를 기록했다. 클래식에서 APT가 한 시간을 넘긴 팀은 제주와 포항 2팀이었다. APT 3위는 울산이었는데, 슛 시도 주기가 리그에서 가장 짧았다. 울산은 경기당 골(득점+실점)도 리그에서 가장 적었으므로 실제 플레이 시간에 비해 관중에게 공격의 재미를 충분히 전달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최종 순위표와 홈경기 관중 동원에서 리그 상위권에 있는 전북, 서울, 수원, APT는 리그 8~10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실제 플레이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및 슛 시도에 소요된 시간이 가장 짧았다. 경기당 32초마다 공격을 시도했고, 3분 39초마다 슛을 때렸다. 특히 슛 1개 시도 주기에서 3분대를 기록한 팀은 전북뿐이었다. 두 번째 기록(수원의 4분 29초)과 비교하면 50초나 짧았다. 상주와 비교에서도 전북 경기의 재미를 알 수 있다. 상주는 공격 시도 주기가 전북보다 1초 정도 길었지만, 슛 시도 주기는 무려 1분 46초나 긴 5분 25초를 기록했다.

공격의 마무리(스) 효율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강원은 슛 시도 주기가 6분 6초로 리그에서 가장 길었다. 그런데 경기 평균 골(득점+실점)이 3.3골로 가장 많았다. 중립 팬으로서 골이 많이 나오는 경기를 본 셈이다. 강원은 APT에서도 리그 5위권에 위치했으니 경기를 '구경' 갔던 일반 축구 팬에게는 흥미진진한 90분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챌린지 APT 1위는 서울이랜드였다. 유일하게 한 시간을 넘긴 60분 32초를 기록했다. 클래식의

경기당 APT - 클래식

순위	팀	APT (분:초)	공격 소요시간 (초)	스� 소요시간 (분:초)	골 소요시간 (분:초)	골 (득+실)
1	제주	60:19	38.5	5:01	23:37	2.55
2	포항	60:10	39.2	4:49	18:26	3.26
3	울산	59:40	36.5	4:50	26:04	2.29
4	광주	59:19	34.3	5:22	23:44	2.50
5	강원	58:49	36.9	6:06	18:01	3.26
6	대구	58:24	39.7	5:09	21:45	2.68
7	전남	57:36	37.7	5:11	17:56	3.21
8	서울	57:16	34.5	4:31	22:12	2.58
9	수원	57:09	35.5	4:29	20:53	2.74
10	전북	56:20	32.0	3:39	19:38	2.87
11	인천	54:39	35.9	6:01	24:26	2.24
12	상주	54:31	33.4	5:25	19:22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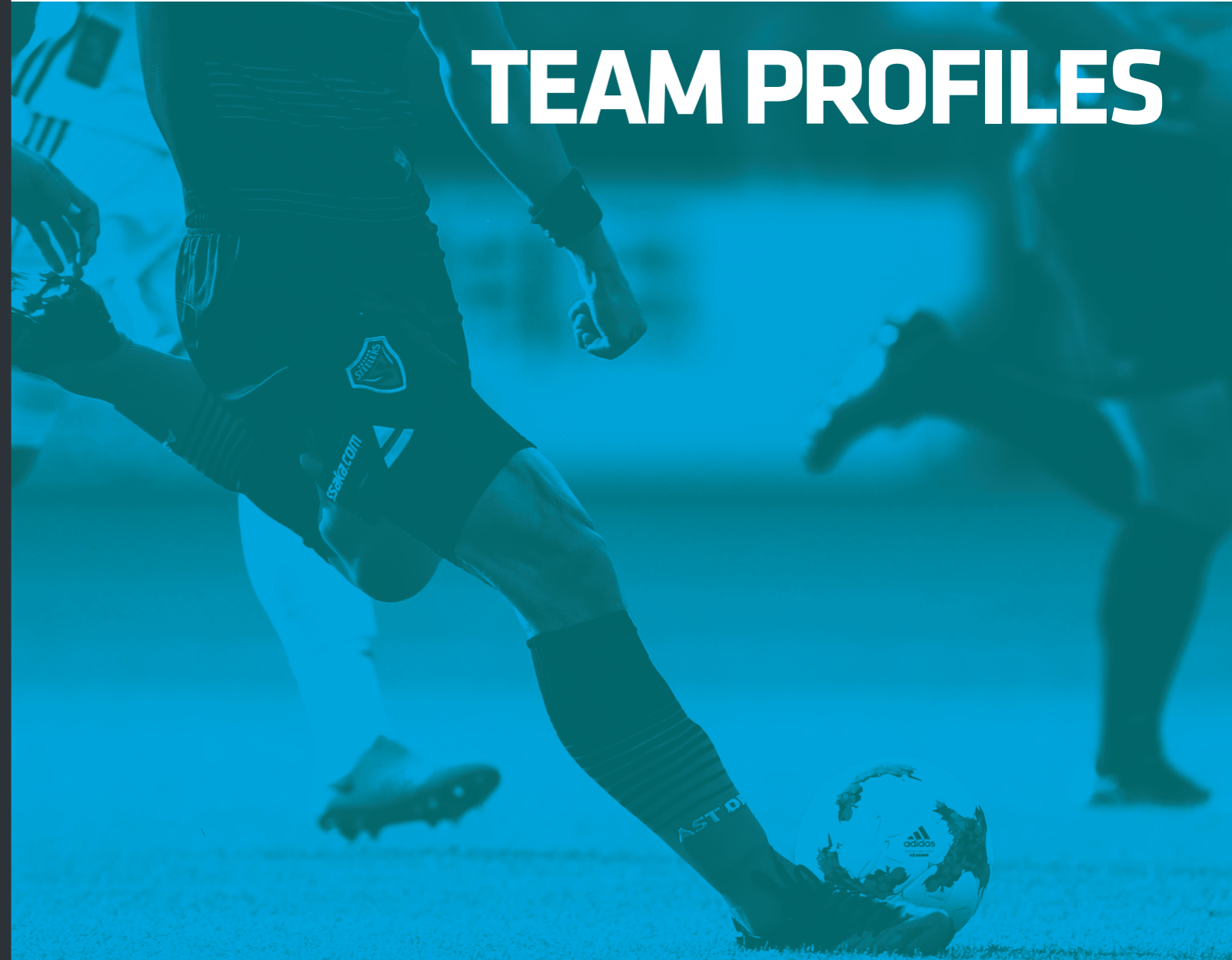
경기당 APT - 챌린지

순위	팀	APT (분:초)	공격 소요시간 (초)	스� 소요시간 (분:초)	골 소요시간 (분:초)	골 (득+실)
1	서울E	60:32	38.0	5:18	22:28	2.69
2	성남	59:21	36.7	6:00	31:50	1.86
3	부천	57:42	34.7	4:53	21:38	2.67
4	부산	57:36	35.2	5:22	25:09	2.29
5	경남	57:18	34.2	4:05	19:39	2.92
6	수원fc	56:48	33.8	4:15	22:43	2.50
7	대전	56:33	32.8	4:16	20:09	2.81
8	안산	55:32	33.7	5:00	22:13	2.50
9	아산	55:18	32.3	4:33	24:26	2.26
10	안양	54:36	31.1	4:15	20:24	2.68

APT와 공격 플레이 주기의 상관관계가 챌린지에서도 겹쳤다. 챔피언 경남은 APT에서 리그 5위(57분 18초)를 기록했지만, 슛 주기가 가장 짧았다(4분 5초). 경기당 골(득점+실점)도 2.9골로 제일 많았다. APT와 별개로 슛을 가장 빈번하게 때린 것은 물론 골 여부를 기준으로 경기의 흥미도 컸음을 알 수 있다. FC안양의 경기는 짧은 플레이 시간(54분 36초)과 짧은 공격 소요시간(31.1초)을 모두 갖고 있었다. 객관적 전력, 팀 순위를 떠나 공격 의지만

큼은 확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이랜드와 성남의 데이터는 반대였다. 실제 플레이 시간은 길지만, 정작 공격 시도 빈도가 낮았다. 공격을 구경하기까지 관중이 기다려야 했던 시간이 제일 길었다는 뜻이다. 서울이랜드는 공격 시도 주기가 가장 길었고, 성남은 슛 시도 주기 및 경기당 득점에서 리그 최하위였다. 2장(18p) '점유율의 숨은 뜻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TEAM PROFILES



K LEAGUE CLASSIC

전북현대모터스

감독 최강희
정규리그 우승
38전 22승 9무 7패 73득 35실 +38

SUMMARY 시즌 초 1~3위를 오가다가 5월 27일 리그 선두 등극 이후 그대로 내달려 통산 우승 5회를 달성했다. 득점, 유효슈팅, 슛 시도, 공격 횟수 등 공격 관련 대부분에서 리그 1위를 기록했고, 리그 최소 실점을 달성했다. 두 자릿수 득점자(3명)도 리그 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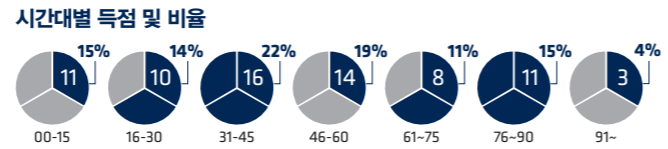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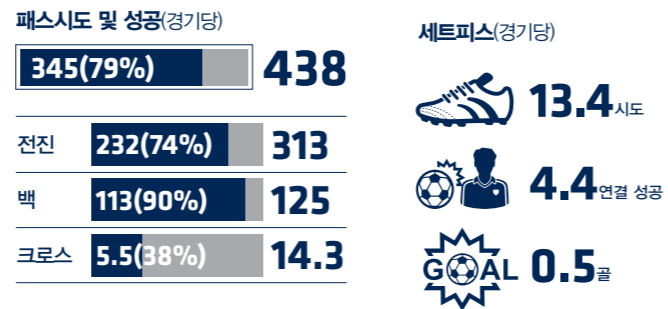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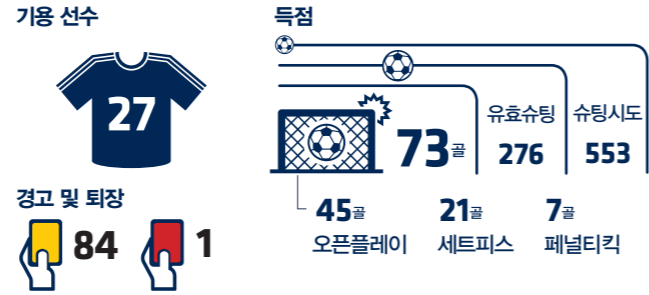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홍정남	30	2888	30	78	1		
	황병근	8	772	5	22			
DF	김민재	29	2673	2		10		
	김진수	29	2621	4	5	7		
	박원재	2	748		1			
	박원재	10	154		1	4		
	이용	8	558					
	이재명	1	84					
	이재성	21	1844	2		3		
	임종은	20	1541			1		
	조성환	11	829		1	4		
	최철순	35	3371		4	8		
	MF	김보경	15	1422	3	2	3	
		신형민	34	3015		1	10	
		에델	24	1162	3	3	3	
이승기		31	2287	9	3	2		
이재성		28	2486	8	10	2		
장윤호		17	1115	1	3	2		
FW	정혁	24	1953	2		10		
	최보경	7	675			2		
	한교원	12	730	1	1	1		
	고무열	14	703			2		
	김신욱	35	2036	10	1	3		
	로페즈	22	1428	4	3	1	1	
	허준호	1	20					
에두	31	1717	13	2	3			
이동국	30	1313	10	5	2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에두	13	46	28%
	김신욱	10	28	35%
	이동국	10	30	33%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이재성	10	74	51%
	김진수	5	55	60%
	이동국	5	46	65%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신형민	1619	1327	82%
	최철순	1574	1294	82%
	이재성	1473	1196	81%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최철순	154	112	73%
	이재성	127	69	54%
	신형민	125	67	54%

K LEAGUE CLASSIC

제주유나이티드

감독 조성환
정규리그 2위
38전 19승 9무 10패 60득 37실 +23

SUMMARY 과감한 전력 보강으로 마지막까지 우승을 다했다. 백스리 전술 구사팀 중 가장 공격적이었다. 안현범, 정운 등의 측면 플레이와 중원의 권순형, 윤빛가람, 이창민, 이찬동이 스피드와 센스를 앞세워 '재미있는' 축구 전통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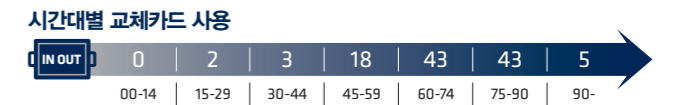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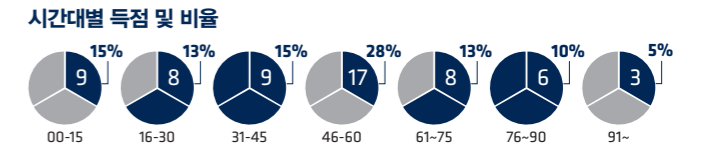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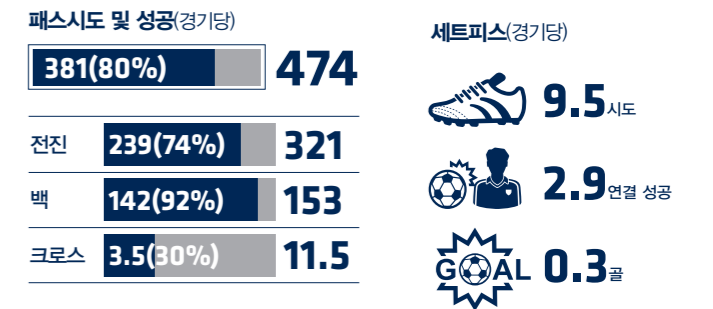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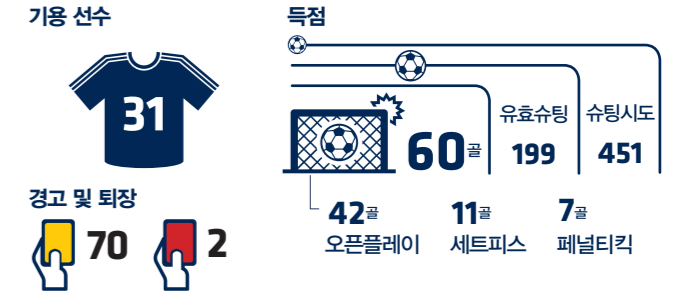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호준	19	1832	22	56			
	이창근	19	1826	15	38	2		
DF	권한진	26	2097			2		
	김상원	4	197			1		
	김수범	6	579		1	2		
	김원일	26	2459	3	1	9		
	박진포	12	1113	1	1	6		
	배재우	13	944		1			
	백동규	3	242			2		
	알렉스	12	1042	1				
	오반석	33	3144	2		3		
	정운	30	2658	1	3	4		
	조용형	17	1371			3		
	MF	권순형	32	2543	2	7	2	
		권용현	2	131	2			
김현욱		3	110					
류승우		8	343	1				
문상윤		18	765	1	3	1		
안현범		27	2186	2	2	1		
윤빛가람		17	1444	2	3	1	1	
이동수		11	502					
이은범		14	738	2		4		
이찬동		28	2075	2	1	8		
FW	좌준협	3	123				1	
	이창민	26	2002	5	3	6		
	마그노	32	2348	13	3	6		
	마르셀로	13	1096	6	3			
	마유송	2	62					
멘디	34	1845	7	2	2			
진성욱	29	1524	5	1	4			
황일수	13	701	2	1	1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마그노	13	26	50%
	멘디	7	24	29%
	마르셀로	6	20	30%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권순형	7	36	47%
	마르셀로	3	43	56%
	윤빛가람	3	31	52%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권순형	1771	1505	85%
	정운	1475	1195	81%
	오반석	1430	1154	81%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이찬동	118	73	62%
	김원일	112	82	73%
	권순형	112	56	50%

K LEAGUE CLASSIC
수원삼성블루윙즈
 감독 서정원
 정규리그 3위
 38전 17승 13무 8패 63득 41실 +22

SUMMARY 잘하고도 경기 막판 운영 미흡으로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여름부터 전력이 안정화되면서 최종 3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득점 상황 패스(6.8개)가 리그 최다로 아가자기한 스타일을 입증했다. 조나탄과 염기훈의 개인 능력이 높을 수 없는 매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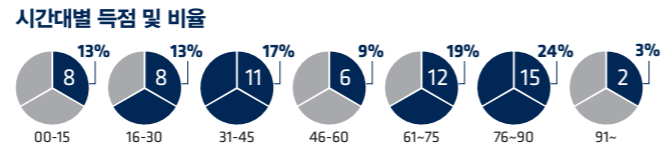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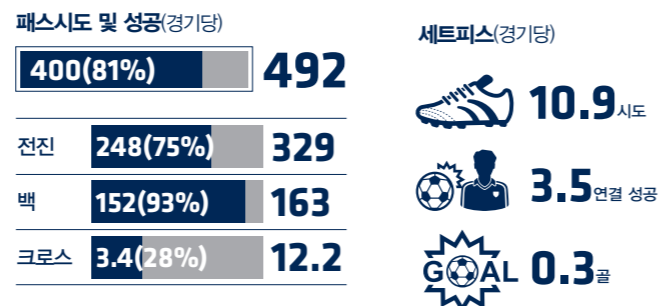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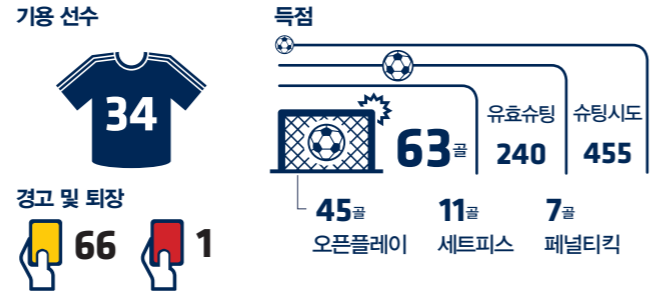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신화용	33	3085	30	87		
	양형모	7	590	11	13	1	
DF	곽광선	31	2776	2		2	1
	구자룡	29	2708			6	
	매튜	25	2326	2	1	9	
	민상기	7	596			1	
	양상민	6	385		1		
	이정수	3	240				
	장호익	19	1523		1	4	
	조성진	7	677				
	조원희	11	645			2	
	MF	고승범	33	2573	2	2	4
고차원		1	70				
김민우		30	2726	6	5	6	
김은선		7	552			2	
김중우		25	1643	2	5	3	
다미르		21	1285			1	
산토스		29	1728	9	2	1	
염기훈		38	2952	6	11	1	
유주안		15	592	2	2	1	
윤용호		3	154	1			
FW	이상민	3	68				
	이용래	19	1276	2	1	1	
	이종성	35	2853	2	2	8	
	장현수	1	77	1			
	조지훈	3	147				
	최성근	22	1998		1	5	
	김건희	7	227		1		
	김종민	1	29				
	박기동	25	1244	3		3	
	서정진	4	182				
조나탄	29	2461	22	3	5		
주현호	1	12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조나탄	22	60	37%
	산토스	9	37	24%
	김민우	6	20	30%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염기훈	11	126	9%
	김중우	5	31	16%
	김민우	5	75	7%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이종성	1732	1424	82%
	김민우	1549	1271	82%
	곽광선	1458	1226	84%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이종성	142	85	60%
	고승범	141	84	60%
	구자룡	106	71	67%

K LEAGUE CLASSIC
울산현대
 감독 김도훈
 정규리그 4위
 38전 17승 11무 10패 42득 45실 -3

SUMMARY 리그 4위, 리그 APT 3위, 상위스플릿 최소 득점(42골) 등 내용과 결과가 따로 놓았다. 이종호와 오르샤 콤비는 리그에서 가장 위력적인 역습으로 상대를 괴롭혔다. 레프트백 이명재는 팀 내 최다 도움, 패스, 태클을 기록한 살림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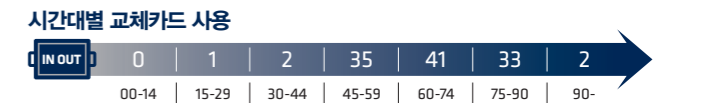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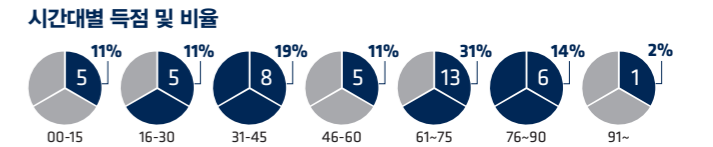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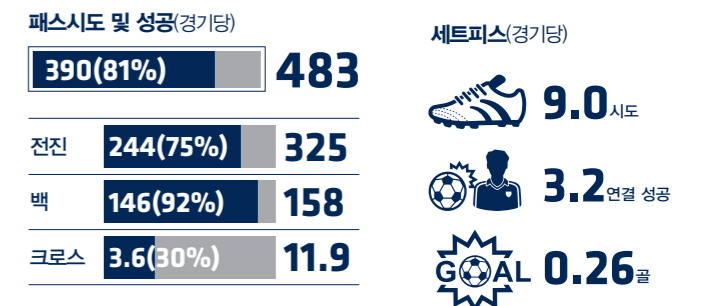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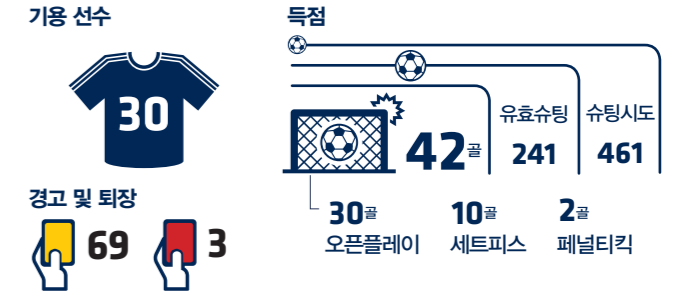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용대	28	2,689	35	75	1	
	조수혁	10	956	10	24		
DF	강민수	24	2,037			4	
	김창수	29	2,731		2	4	2
	김치곤	11	981	1		5	
	리차드	30	2,846	2	1	4	
	이기제	8	640		1	2	
	이명재	32	3,023	1	4	2	
	정동호	4	245			2	
	정승현	12	1,068			5	
	최규백	11	792			1	1
	MF	김건웅	2	77			
김성환		19	1,206	1		5	
박용우		31	2,076	2		3	
오르샤		38	3,026	10	3	1	
이명재		30	2,014	2	2	4	
이지훈		3	223			1	
장성재		2	71				
정재용		32	2,811	3		8	
코바		7	387		2		
타쿠마		12	640	1	1	2	
FW	페트라토스	4	204		1		
	한상운	18	1,217	1	1		
	한승규	9	545	1	1		
	김수안	12	295			2	
	김승준	30	1,909	3	1	2	
	김인성	36	2,213	5	3	2	
	수보티치	11	538	1		4	
	이종호	34	2,386	8	3	4	
	조영철	3	120			1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오르샤	10	66	15%
	이종호	8	48	28%
	김인성	5	43	24%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이명재	4	32	12%
	이종호	3	54	5%
	김인성	3	37	8%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이명재	1905	1546	81%
	정재용	1787	1479	83%
	김창수	1479	1177	80%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이명재	137	91	66%
	정재용	131	82	63%
	이명재	110	57	52%

K LEAGUE CLASSIC



FC서울

감독 황선홍
정규리그 5위
38전 16승 13무 9패 56득 42실 +14

SUMMARY 타이틀 방어, 아시아 티켓 확보 모두 실패했다. 상위스플릿 팀을 상대 승점이 하위스플릿 상대팀 경기보다 많아 경기력의 꾸준함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데안과 윤일록은 꾸준히 공헌했다. 수비진에서는 오스마르와 함께 황현수의 발견이 반가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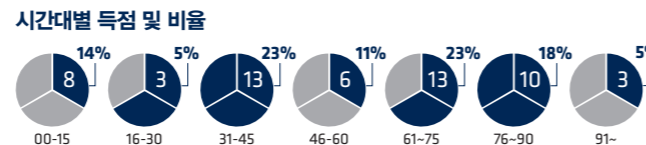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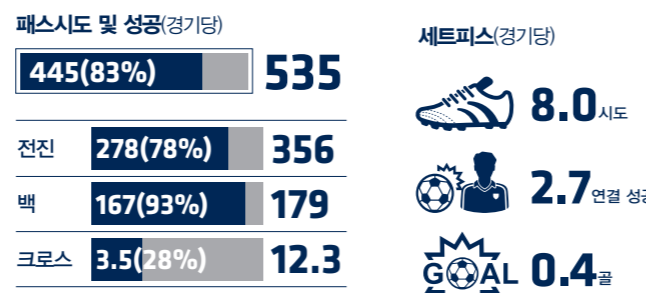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양한빈	27	2591	29	86	2	
	유현	11	1055	13	24		
DF	곽태휘	24	1969	2		1	
	김근환	1	46				
	김동우	5	444		1	2	
	김원균	8	622			2	
	김치우	21	1960		2	1	
	박민규	1	72			1	
	신광훈	21	2012		1	3	
	심상민	13	711		1	1	
	이규로	18	1594		3	4	
	이웅희	5	486			1	
	정인환	6	469			3	
MF	칼레드	2	109				
	황기욱	7	413				
	황현수	26	2375	3		6	1
	고요한	28	2397	2		9	
	김원식	6	158				
	김한길	10	347			2	
	오스마르	33	3112	4		3	
	윤승원	17	874	3	1	3	
	이명주	13	947	2	1		
	이상호	28	2062	3	1	1	
FW	이석현	17	1108	1			
	임민혁	4	122				
	조찬호	11	405				
	주세종	35	2993		5	2	1
	코바	7	422		3		
	하대성	7	403	1		1	
	데안	37	2659	19	3	2	
	마우링요	9	329			1	
	박주영	34	1616	8	1		
	박희성	1	7				
FW	심우연	3	32			1	
	윤일록	35	3038	5	12	5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데안	19	58	33%
	박주영	8	23	35%
	윤일록	5	31	16%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윤일록	12	88	14%
	주세종	5	71	7%
	코바	3	27	11%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주세종	2267	1928	85%
	오스마르	2049	1752	86%
	윤일록	1452	1138	78%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오스마르	160	99	62%
	주세종	125	73	58%
	고요한	92	46	50%

K LEAGUE CLASSIC



강원FC

감독 최윤겸, 박효진 대행, 송경섭
정규리그 6위
38전 13승 10무 15패 59득 65실 -6

SUMMARY 승격 첫 해 상위스플릿 진입에 성공했다. 조직력 문제로 경기력 기록이 심하면서도 공격 축구를 고집해 경기당 3.3골을 기록해 중립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했다. 이근호는 득점, 도움, 경합, 드리블 등에서 활기차게 팀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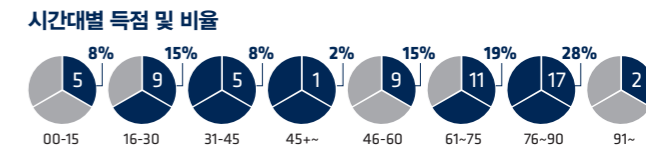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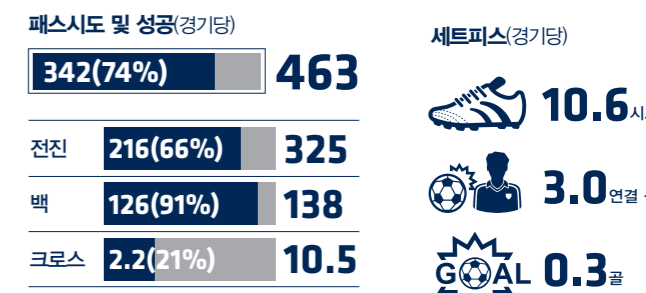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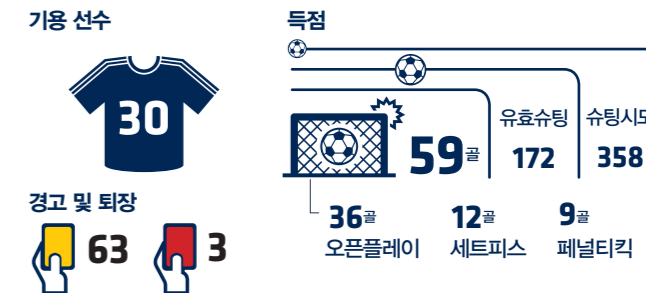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강모근	1	95	5	3		
	송우걸	1	96	2	0		
	이범영	36	3457	58	113	1	
DF	강지용	25	2016	1		3	1
	김오규	33	3171	2		2	
	박선주	16	999		1	6	1
	발렌티노스	7	663	1		1	
	백중환	10	792			3	
	안지호	24	1874	3		6	
	오범석	28	2615		1	7	
	정승용	31	2709			4	
	제르손	10	969	1		1	
	MF	김경중	32	1771	3	1	3
김승용		34	1759	3	6	2	
문창진		29	2096	6	3	1	
박요한		13	967	1		1	
안수민		3	64			1	
오승범		22	1370		1	1	
이용		1	11				
쯔영		2	105				
한국영		18	1593	2		6	
황진성		31	2807	3	5	3	
FW	김민준	7	539			1	
	나니	4	191				
	디에고	36	1861	13	3	2	
	신영준	1	8				
	안상민	2	83			1	
	이근호	37	3420	8	9	3	
	임찬울	18	728	2	2	2	
	정조국	18	1184	7	1	2	1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디에고	13	30	43%
	이근호	8	24	33%
	정조국	7	21	33%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이근호	9	100	9%
	김승용	6	63	9%
	황진성	5	42	12%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김오규	1643	1395	85%
	정승용	1510	1191	79%
	황진성	1361	1080	79%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정승용	128	79	62%
	오범석	116	66	57%
	황진성	104	45	43%

K LEAGUE CLASSIC
포항스틸러스
감독 최순호
정규리그 7위
38전 15승 7무 16패 64득 60실 +4

SUMMARY 상위스플릿에서 밀렸다. 양동현은 국내 선수 최다 득점자(19골)로 재탄생했고, 손준호는 도움왕 등극으로 부상 악몽을 완전히 털었다. 손준호는 리그 최다 패스를 비롯해 거의 모든 스탯에서 리그 최정상급 활약을 펼쳤다. 기록 시즌 MV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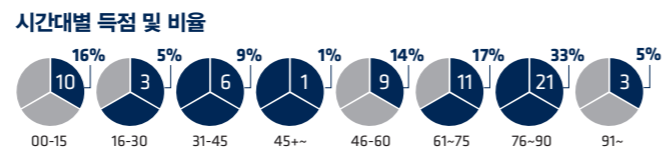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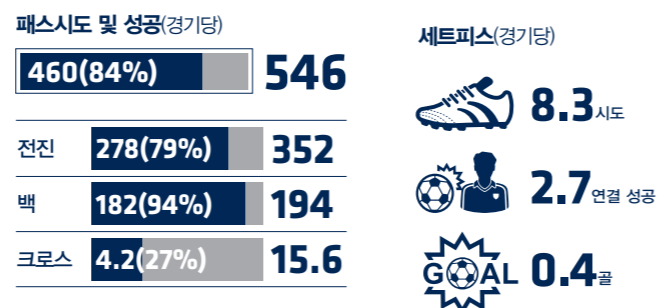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강현무	26	2443	33	90	1	
	노동건	13	1139	25	33		
	김진영	1	55	2	0		
DF	배슬기	36	3310	2	1	1	
	권완규	32	3042		3	7	
	김광석	16	1528	1		1	
	조민우	14	1292	1		1	
	장철용	11	602			1	
	오도현	5	239				1
	안세희	2	156				
	우찬양	4	285				1
	김동기	5	124		1		
	박선용	1	46				
MF	손준호	35	3264	4	14	7	
	무랄라	33	2116		2	11	
	황지수	20	993			2	
	이승희	13	1013	1		3	
	이래준	4	116			1	
	이승모	3	134			1	
	이명건	1	25				
오창현	5	60				1	
FW	심동운	37	2864	8	2	3	
	양동현	36	3284	19	2	5	
	롤리나	33	2990	17	4	5	
	강상우	33	3163		1	3	
	이광혁	30	1513	1	6	1	
	이상기	28	1150	2	3	3	
	완델손	19	1318	1	4	2	
	서보민	19	681	1	2		
김승대	11	806	2	1		1	
김종석	1	65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양동현	19	59	32%
	롤리나	17	38	45%
	심동운	8	23	35%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손준호	14	87	16%
	이광혁	6	32	18%
	완델손	4	17	24%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손준호	2625	2204	84%
	배슬기	1939	1640	85%
	김상우	1712	1413	83%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무랄라	151	99	66%
	손준호	150	72	48%
	강상우	123	86	70%

K LEAGUE CLASSIC

대구FC
감독 손현준, 안드레 대행
정규리그 8위
38전 11승 14무 13패 50득 52실 -2

SUMMARY 승격 시즌, 시즌 도중 사령탑 교체 등 악재를 뚫고 클래식 잔류에 성공했다. 브라질 선수 3인방(주니오, 에반드로, 세징야)은 팀 내 득점 1~3위를 점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재미있는 축구'라는 모토를 공격 축구로 실천해 박수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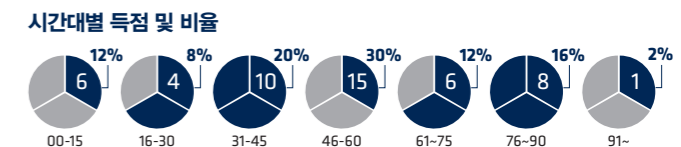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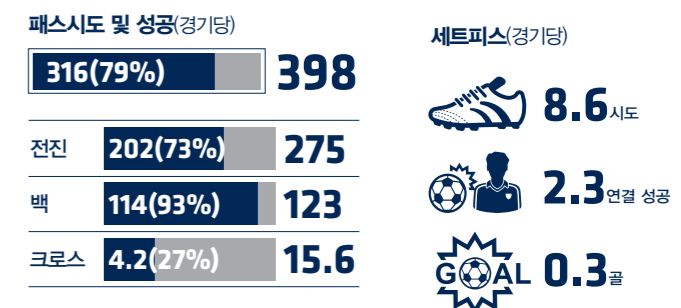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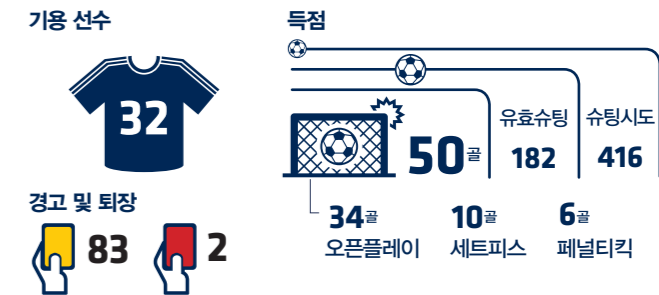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조현우	35	3376	48	103	2		
	이양중	3	290	4	12			
DF	한희훈	36	3437	1		4		
	정우재	33	3080	1	5	3		
	김진혁	32	2686	4		7		
	오광진	20	1428			7		
	김동우	14	1285					
	김우석	12	1119	1		4		
	박태홍	10	971		1	4		
	황재원	9	190			1		
	홍정운	6	272			3		
	박세진	4	189					
	프라니치	2	96			1		
	MF	김동진	21	1758			5	
		김선민	33	2780		8	2	
레오		19	1618	7		6	1	
류재문		23	1923	1	3	4		
박한빈		17	1101			2		
신창우		19	1023	2	1	5		
우상호		17	1152			3		
FW	이재권	11	635			1		
	이해웅	1	9					
	호드리고	1	82					
	홍승현	22	1662		1		1	
	황순민	8	548		1	2		
	에반드로	29	2496	11	2	5		
	세징야	27	2503	7	7	8		
	전현철	11	327	2	1			
	주니오	16	1110	12	1	2		
	김대원	10	445		1			
정승원	9	477			2			
김경준	3	148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주니오	12	26	46%
	에반드로	11	28	39%
	세징야	7	18	39%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김선민	8	54	15%
	세징야	7	79	9%
	정우재	5	33	15%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김선민	1667	1421	85%
	한희훈	1406	1198	85%
	정우재	1215	930	77%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한희훈	148	102	69%
	김진혁	103	67	65%
	김선민	98	53	54%

K LEAGUE CLASSIC



인천유나이티드

감독 이기형
정규리그 9위
38전 7승 18무 13패 32득 53실 -21

SUMMARY '어차피 인천은 잔류'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끈덕짐을 재 입증했다. 4월부터 강등권을 들락날락하다 마지막 3경기에서 살아나 잔류는 물론 한 자릿수 순위까지 차지했다. 90분 내내 쉴없이 뛰는 '땀내 전술'이 아말로 인천의 최대 매력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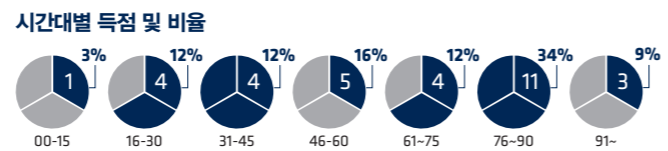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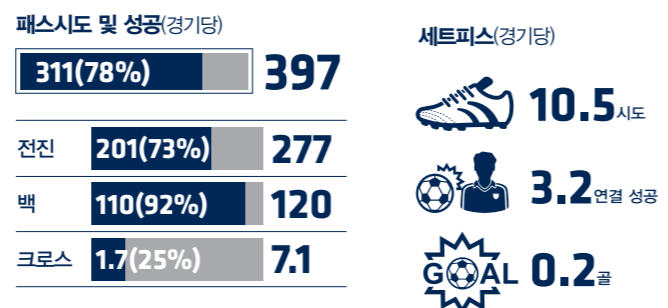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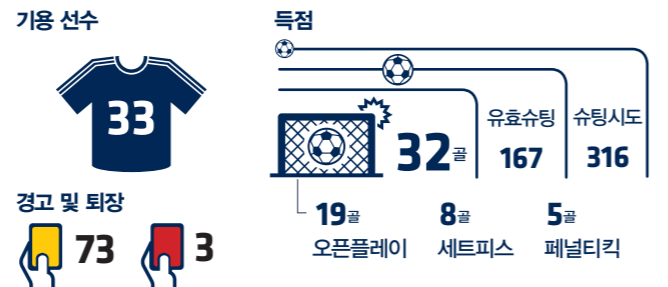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이진형	16	1537	15	49	1	
	정산	12	1153	21	35	1	
	이태희	10	956	17	31	1	
DF	곽해성	2	108				
	김대경	2	103	2			
	김대중	22	1183		5		
	김동민	13	1096				2
	김용환	30	2509	2	1		3
	명성준	1	8				
	부노자	14	1198				4
	이운표	32	3016		2		4
	이학민	7	670				
	채프만	27	2296	2			5
	최종환	29	2684	3	3		5
MF	하창래	20	1913	1			8
	김경민	14	1134				3
	김도혁	20	1530	1	2		3
	김동석	6	495				1
	윤상호	11	757				1
	이상협	20	1516				1
	이정빈	8	315				1
FW	한석중	32	2939	3	1		5
	김보섭	3	114				
	김진야	16	754		1		1
	달리	11	609		1		2
	문선민	30	1815	4	3		4
	박세직	5	462	1			1
	박용지	21	1035	4	1		2
	박종진	25	1843				3
	송시우	32	1668	5			2
	엔조	6	274	1			1
웨슬리	27	1766	2	1		9	
이호균	7	349	1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송시우	5	16	31%
	박용지	4	8	50%
	문선민	4	25	16%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김대중	5	22	28%
	최종환	3	40	8%
	문선민	3	30	10%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한석중	1496	1261	84%
	최종환	1381	1041	75%
	이운표	1276	984	77%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한석중	148	82	55%
	김용환	94	54	57%
	최종환	90	49	54%

K LEAGUE CLASSIC



전남드래곤즈

감독 노상래
정규리그 10위
38전 8승 11무 19패 53득 69실 -16

SUMMARY 리그 최다 실점(69골), 강등 우려 등 전반적으로 우울했다. 후반전 실점(42골)이 전북과 제주의 총 실점보다 많았다. 자일(16골)과 김영욱(8도움)이 그나마 희망을 줬고, 수비 라인에서는 유쾌한 노장 현영민이 고군분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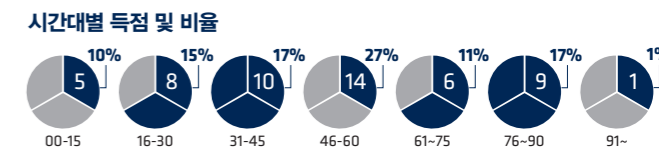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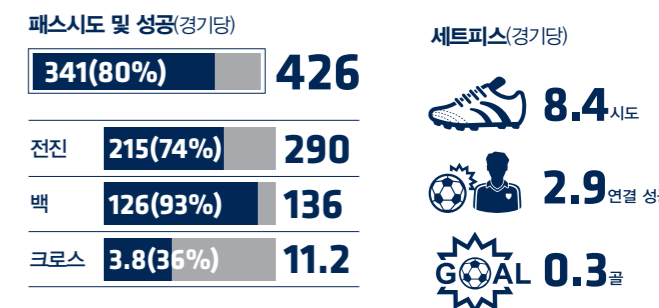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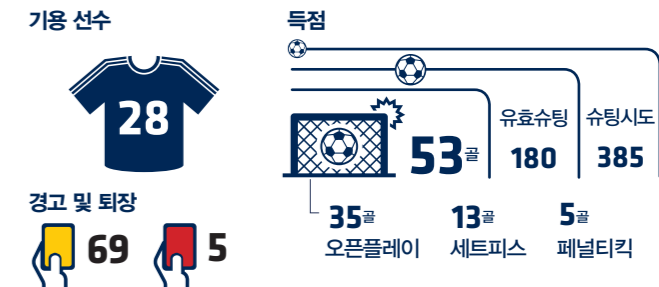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이호승	32	3072	56	103	1		
	박대한	3	1073	7	10			
	임민혁	3	293	6	13			
DF	고태원	26	2265			2	1	
	김경재	8	382					
	김준수	13	835				1	
	박대한	16	288				4	
	연제민	7	582				1	
	이슬찬	33	3042	4	2		10	
	이유현	5	373				1	
	이지남	20	1857	1			4	
	최재현	23	1737	3	2		5	
	최효진	22	2104	1	3		2	
	토미	28	2157	3	1		6	
MF	현영민	31	2650			1	4	
	김영욱	30	2697	4	8		5	
	김재성	14	819		1		1	
	송창호	11	491				1	
	양준아	13	749				1	
	유고비치	28	2364	3			3	
	한지원	3	47					
	한찬희	29	1810	3	2		2	
	FW	김성주	2	39				1
		배천석	8	435			1	
안용우		14	715			1		
자일		35	2862	16	3		4	
페체신		32	2233	10	4		3	
하용준	35	1956	3	3		8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자일	16	42	38%
	페체신	10	32	31%
	김영욱	4	11	36%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김영욱	8	60	13%
	페체신	4	50	8%
	최효진	3	32	9%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현영민	1709	1442	84%
	김영욱	1378	1095	79%
	이슬찬	1268	1035	82%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현영민	146	85	58%
	김영욱	122	72	59%
	최효진	113	69	61%

K LEAGUE CLASSIC



상주상무

감독 김태완
정규리그 11위
38전 8승 11무 19패 41득 66실 -15

SUMMARY 잦은 선수 교체의 한계에 다시 고생했다. 승강플레이오프에서 부상을 승부차기로 힘겹게 따돌리고 잔류에 성공했다. 주민규는 7경기 연속 득점 기록을 세웠고, 측면에서 김태환(리그 최다 크로스 시도)과 홍철이 활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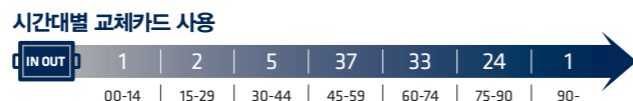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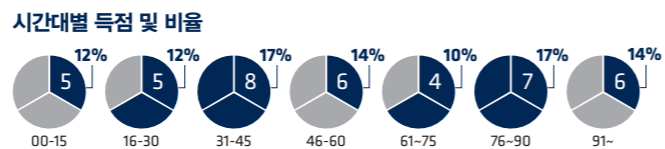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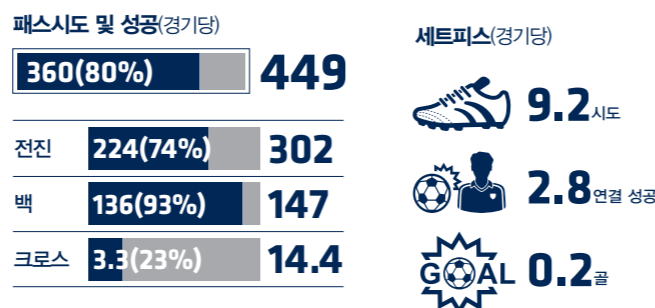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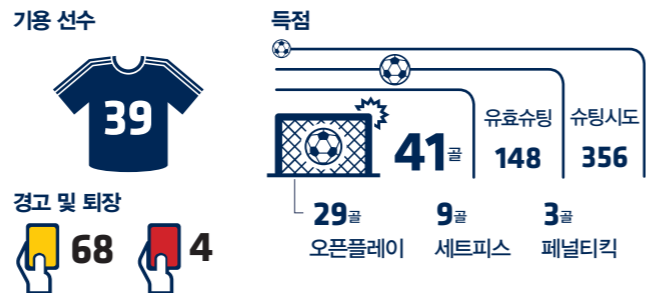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오승훈	21	1943	29	61	2	1
	최필수	10	963	18	24		
	유상훈	8	742	19	20		
DF	김남춘	19	1725	1	1	2	
	김진환	7	421		1	1	
	박준강	7	553			1	
	신세계	13	1252				
	윤영선	17	1278			2	
	윤준성	15	1288			2	
	이경렬	11	866			5	
	이광선	7	524			1	
	이웅희	5	479				
	이재명	1	54				
	임채민	20	1800	1		3	
	정준연	5	365			2	
	홍철	27	2504	1		1	
MF	김성주	21	1806		1	3	
	김성준	19	1525	1		5	
	김태환	34	3059	2	7	8	
	박수창	9	387				
	신진호	12	956	1	1	5	
	여름	24	1920	1	1	8	1
	이종원	15	1137		1	2	2
	임성택	7	353	1			
	정선호	2	131				
	조지훈	8	487				
FW	황순민	11	795	1		1	
	김도형	2	28				
	김병오	25	1399	3	1	5	
	김호남	32	2680	7	2	2	
	박희성	5	177				
	신영준	6	282				
	유준수	25	1502	1	2	4	
	윤동민	12	532		1		
	윤주태	8	284		1		
	조영철	15	973	2			
주민규	32	2618	17	6	3		
진대성	2	68					
최진호	2	45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주민규	17	39	44%
	김호남	7	20	35%
	김병오	3	16	19%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김태환	7	55	13%
	주민규	6	33	18%
	홍철	5	59	8%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홍철	1553	1200	77%
	김태환	1332	1030	77%
	김성주	1221	968	79%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홍철	112	72	64%
	김성준	94	43	46%
	김태환	82	57	70%

K LEAGUE CLASSIC



광주FC

감독 남기일, 김학범
정규리그 12위
38전 6승 12무 20패 33득 61실 -28

SUMMARY 시즌 도중 감독 교체 등 시련 끝에 결국 강등 운명을 맞이했다. 공격수 송승민은 리그 전경기 출전하는 투혼을 발휘했다. 중원에서 본즈가 패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윤보상이 골문에서 고군분투했다. 슛 1개당 공격이 9.4회에 달해 슈팅 기회 만들기에 애를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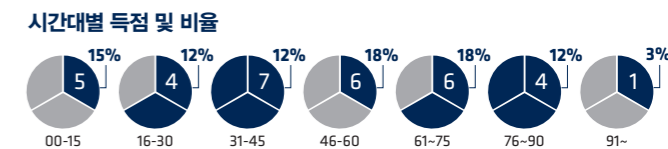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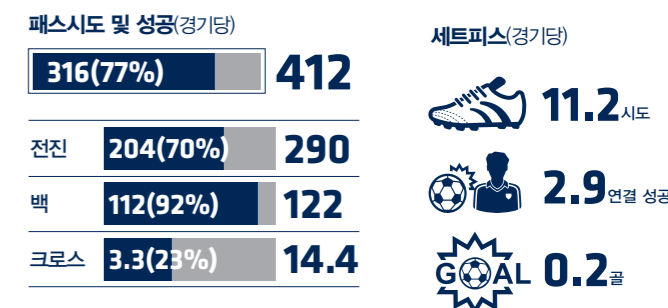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윤보상	26	2444	42	72	2	
	최봉진	10	961	16	19		
	윤평국	3	251	4	4		
DF	김상원	5	403			1	
	김영민	23	1868	2		6	
	박동진	33	3013			5	
	안영규	1	95			1	
	이민기	28	2554		2	7	
	이종민	20	1585			1	3
	이한도	25	2256			5	
	정동윤	24	1928		1	4	
	정준연	1	31				
	정호민	3	232			1	
	홍준호	29	1383		1	5	
	황인혁	1	96				
	MF	김민혁	34	2849	2	3	2
김시우		2	46				
김정현		14	1015	2		4	1
본즈		28	2500	1	2	4	
여봉훈		31	2321	1	1	8	
이우혁		19	1413	1		4	
임대준		5	191			1	
임선영		8	631				
조성준		12	757	2		1	
주현우		25	1480	1	4	1	
FW	토모키	2	105				
	나상호	18	1071	2		1	
	맥긴	7	339				
	바로스	1	56				
	송승민	38	3461	5	2	2	
	완델손	18	1211	8		2	1
	이중서	8	127				
	정영총	6	153			1	
	조주영	22	1297	5	2	1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완델손	8	25	32%
	조주영	5	15	33%
	송승민	5	27	19%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주현우	4	25	16%
	김민혁	3	60	5%
	조주영	2	17	12%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본즈	1286	1079	84%
	이민기	1275	953	75%
	박동진	1254	930	74%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이민기	108	75	69%
	여봉훈	102	67	66%
	본즈	91	53	58%

K LEAGUE CHALLENGE

경남FC

감독 김종부
정규리그 우승
36전 24승 7무 5패 69득 36실 +33

SUMMARY 클래식이 전복 천하였다면 챌린지의 포시자는 경남이었다. 4월 30일부터 한 번도 선수를 놓치지 않고 우승했다. 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한 팀 공격력이 압도적이었다. 챌린지 MVP 말경은 거의 모든 공격 부문 통계에서 독보적 활약을 펼쳐 경남 승격을 이끌었다.

TEAM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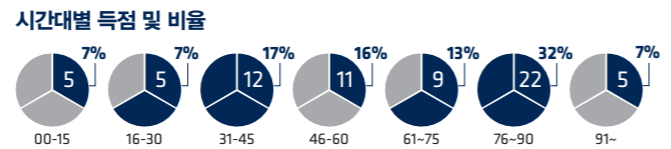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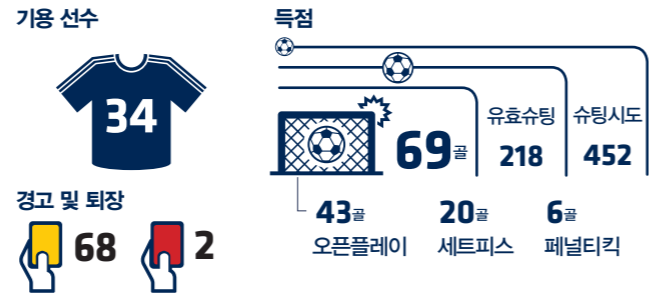


포메이션 사용 횟수
352 1회
4141 1회
4231 12회
4123 6회
442 16회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형록	2	190	3	5		
	이범수	21	2020	18	64	1	
	이준희	13	1250	15	38	2	
DF	김근환	12	371	3	1		
	최봉균	1	60				
	최재수	20	1489	1	3	5	1
	조병국	8	710	1		4	
	박명수	11	758		1	2	
	박지수	33	3172	2	1	5	
	안성빈	2	190				
	우주성	31	2884	3	3	6	
	이만	30	2800	1		6	
	이상현	1	47				
	MF	강승조	3	98			
권용현		13	870	2	3	2	
김선우		3	121			1	
김의원		4	256		1		
브루노		32	2325		8	4	1
안성남		30	1894	1	1	4	
윤종규		5	348			3	
이만표		4	128				
이현성		14	655		1		
이현웅		1	21				
정현철		33	3065	7	3	7	
FW	진경선	1	56				
	최영준	31	2578	3	1	5	
	김도엽	10	544	3			
	김민준	7	336				
	김진용	2	81			2	
	말경	32	2935	22	3	5	
	배기종	32	1758	6	3	2	
	성봉재	8	39		1		
	송제현	14	544	3			
	정원진	34	2960	10	10	2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말경	22	60	37%
	정원진	10	31	32%
	정현철	7	16	44%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정원진	10	39	25%
	브루노	8	59	13%
	권용현	3	25	12%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정현철	1589	1292	81%
	우주성	1470	1153	78%
	박지수	1295	1095	84%
	우주성	136	96	70%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우주성	136	96	70%
	최영준	131	77	58%
	박지수	127	93	73%

K LEAGUE CHALLENGE

부산아이파크

감독 조진호, 이승엽 대행
정규리그 2위
37전 20승 11무 6패 68점 55득 30실 +25

SUMMARY 경남의 유일한 대항마였다. 클래식-챌린지 전체에서 가장 많은 득점자 21명을 기록했다. 이정협과 고경민이 공격을 이끌었고, 수비에서는 모라이스와 야스다가 돋보였다. 공격 시도 횟수도 리그 2위로 활기찬 내용으로 꾸몄다. 리그와 FA컵에서 막판 마무리에 실패했다.

TEAM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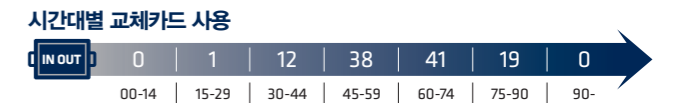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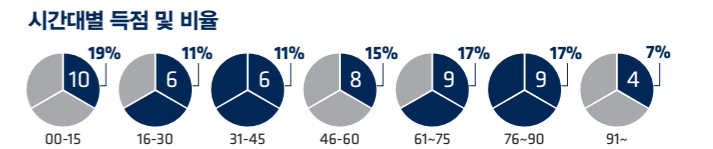


포메이션 사용 횟수
343 1회
352 10회
4141 2회
4231 6회
4123 7회
442 11회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경민	14	1339	11	35	1	
	구상민	13	1250	11	37	1	
	김형근	10	963	9	30		
DF	구현준	19	1726	1	1	4	
	권진영	13	1085	1		3	
	김중혁	10	811		1	1	
	모라이스	26	2492	1		4	
	야스다	21	1827	1	4	2	
	이경렬	5	393	1		3	
	이준희	2	190				
	이창용	13	1049		1	1	
	임유환	6	368			1	
	정호정	25	2073			1	
	차영환	26	2003	2		3	
MF	홍진기	6	522	2		1	
	고경민	18	1277	9		2	
	김윤호	3	153			1	1
	김진규	10	680			2	
	루키안	18	865	2		1	
	유지훈	9	665		1	2	
	이규성	15	996	3		2	
	이동준	8	350	2		2	
	이재권	14	1235	2		4	
	임상협	30	2284	6	4	2	
	전현철	11	440		2		
FW	정석화	24	1515	1		1	
	최광희	6	464		1	2	
	허범산	13	1151	1	4	4	
	호물로	21	1497	1	7	5	
	홍동현	1	16				
	김문환	30	2420	4	1	4	1
	김현성	4	169				
	레오	2	145				
	박준태	23	1456	2	3	1	
	윤동민	3	135	1		1	
	이정협	26	1883	10	3	5	
최승인	15	734	1		2		
한지호	5	382	1	1	2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이정협	10	24	41%
	고경민	9	12	75%
	임상협	6	25	24%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호물로	7	47	14%
	야스다	4	18	22%
	한지호	4	24	16%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모라이스	1174	939	79%
	정호정	1133	929	81%
	차영환	1111	927	83%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모라이스	93	59	63%
	호물로	81	47	58%
	김문환	78	41	52%

K LEAGUE CHALLENGE



아산무궁화

감독 송선호
정규리그 3위
38전 16승 9무 13패 54점 45득 40실 +5

SUMMARY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다. 공격 시도가 챌린지 1위인 경기당 108.6회를 기록했지만, 득점은 경남보다 24골 모자라 결정력 부족을 드러냈다. 측면에 선 이주용은 도움, 패스, 태클에서 모두 팀 내 1위를 기록했다. 패스 시도가 챌린지 1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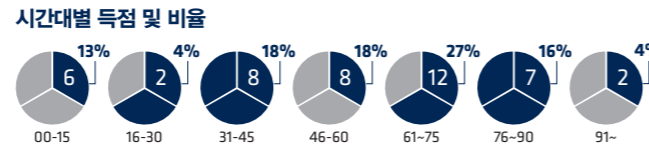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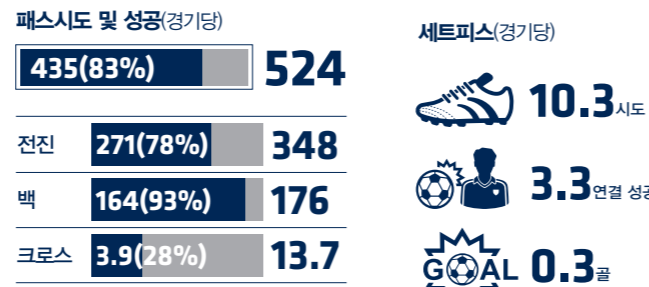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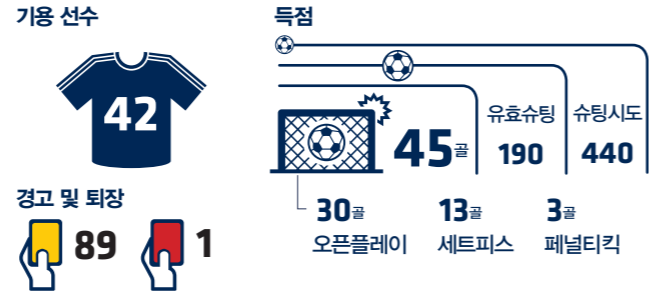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박형순	33	3368	37	82	2	
	손정현	3	286	3	15		
DF	구대영	9	940		1	2	
	김동철	13	1122	1	2	4	
	김상필	2	102				
	김준엽	18	1736		2	3	
	민상기	7	722	1			
	박선용	3	220				
	안영규	10	769		1	2	
	이웅	1	7				
	이오희	9	780			1	1
	이주용	24	2201		5	2	
	정다훤	11	822	1	1	5	
	조성진	18	1644			4	
	하인호	1	7				
황도연	22	2034	1		4		
MF	김민균	5	399			1	
	김영남	7	795		1	3	
	김은선	12	1105	3		4	
	김재웅	6	367			3	
	김종국	15	1604			5	
	서용덕	13	887		2	1	
	이창용	26	2203	2		5	
	이현승	14	1165	2		3	
	임선영	13	1016	3	1		
	조성준	8	432	1		1	
FW	허범산	4	364			2	
	주현재	15	1187	2	1	6	
	최보경	20	1926		1	3	
	공민현	16	1292	1	1	4	
	김륜도	9	314				
	김부관	7	215	1	1	2	
	김현	21	1381	6	3	3	
	남준재	14	877	2		1	
	최진수	3	55		1	1	
	김동섭	6	262			2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한익권	7	20	35%
	김현	6	22	27%
	이재안	6	15	56%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이주용	5	37	13%
	서용덕	3	18	16%
	한지호	3	24	12%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이주용	1468	1185	80%
	최보경	1378	1218	88%
	이창용	1331	1196	89%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이주용	96	61	63%
	이창용	78	41	52%
	김준엽	72	51	70%

K LEAGUE CHALLENGE



성남FC

감독 박경훈
정규리그 4위
37전 13승 14무 10패 53점 38득 31실 +7

SUMMARY 챌린지에서 APT가 두 번째로 길었지만, 슈팅을 만드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경기당 공격, 유효슈팅 등이 모두 리그 최하위권이었다. 시즌 도중 이적한 황의조가 팀 내 득점 3위였을 만큼 득점에 애를 먹었다. 팀 득점(38골)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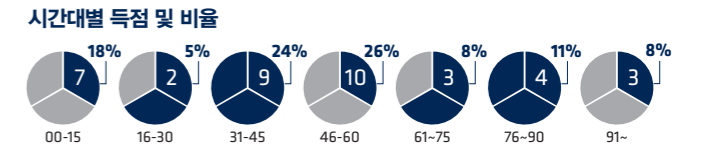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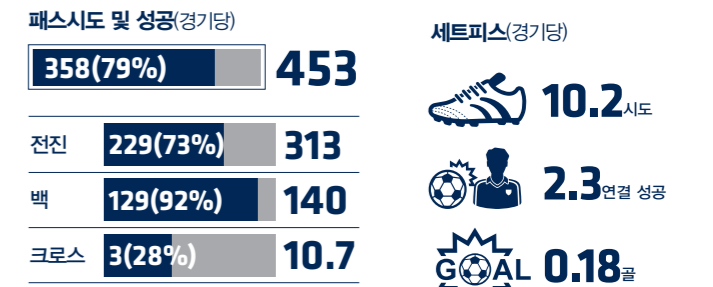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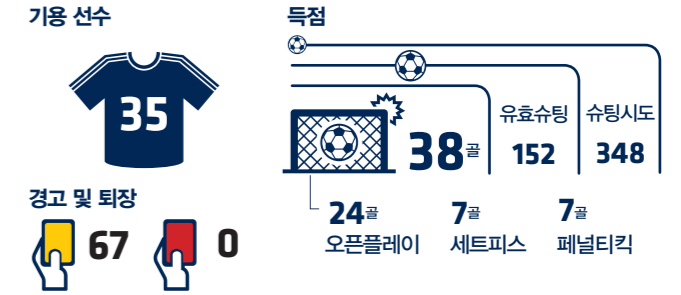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동준	36	3395	29	131	2	
	양동원	2	170	2	1		
DF	곽해성	4	355				
	김민규	2	123				
	김태윤	5	428				
	문지환	13	623			1	
	안재준	13	1079	1	1	4	
	연제운	33	3131			2	
	오도현	5	333			1	
	오르슬리치	15	1185			7	
	이지민	32	3001	1	4	5	
	이태희	29	2787		1	3	
	이학민	1	69				
	장학영	11	520			2	
	MF	김두현	25	1236	3	1	2
김영신		13	768				
배승진		20	1586			5	
안상현		24	2156	1		7	
오정은		3	245			1	
이성재		18	1209			4	
조재철		14	803	1	1	4	
FW	이후권	29	2753	1	3	2	
	장은규	9	711			1	
	김동찬	17	1425	6	1		
	김동희	8	288			1	
	남준재	1	67				
	네코	4	180			1	
	박성호	31	2242	9	1	2	
	비도시치	7	393				
	심제혁	23	1127			2	
	이창훈	16	780	1		2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박성호	9	29	31%
	김동찬	6	14	43%
	황의조	5	17	29%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이지민	4	46	8%
	이후권	3	39	7%
	장은규	1	16	6%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이지민	1507	1129	74%
	이태희	1474	1191	80%
	연제운	1397	1174	84%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이후권	150	86	57%
	이태희	115	71	61%
	이지민	113	66	58%

K LEAGUE CHALLENGE

부천FC1995

감독 정갑석
정규리그 5위
36전 15승 7무 14패 52점 50득 46실+4

SUMMARY 막판 힘이 달려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패스 평균 거리가 경남 다음으로 길었다. 경기당 키페스 부문에서는 리그 1위를 기록했다. 페널티킥 득점이 한 골도 없는 점이 눈길을 끈다. 브라질 골잡이 바그닝요(12골)와 진창수(9골)가 득점을 이끌었다.

TEAM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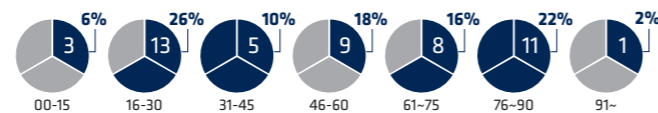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류원우	34	3251	43	96	1	
	최철원	3	102	3	4		
DF	고명석	28	2418	2		2	
	김영남	14	1185	1	3		
	김진현	2	131				
	김한빈	27	2465	1	1	2	
	김형일	10	843		1	1	
	박민	15	1265	1	1	3	
	이재원	3	54			1	
	임동혁	34	415	2		6	
	지병주	12	219			1	
	MF	닐손주니어	34	3194	3	3	2
문기한		33	2998	5	8	4	
바그닝요		28	2689	12	1	11	
안태현		36	3414	1	1	2	
유지민		13	435		1	2	
FW	이정찬	12	3229			1	
	조범석	32	700		4	3	
	조수철	10	2675	1		2	
	공민현	4	282	1	1		
	김신	29	2001	4	6	3	
	신현준	12	259	1		3	
	이윤환	1	9	1			
	정성훈	9	2148	1		1	
진창수	35	114	9	3	4		
파다예프	5	628	1				
하리스	2						
호드리고	14	2	1	2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및 비율



시간대별 교체카드 사용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바그닝요	12	40	30%
	진창수	9	28	32%
	문기한	5	19	26%

ASSIST	이름	도움	키페스	키페스 성공%
	문기한	8	75	10%
	김신	6	45	13%
	조범석	4	46	8%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문기한	1749	1275	72%
	안태현	1439	1107	76%
	닐손주니어	1338	1065	79%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닐손주니어	191	131	68%
	안태현	177	99	55%
	문기한	153	91	59%

K LEAGUE CHALLENGE

수원FC

감독 조덕제, 조종화 대행, 김대의
정규리그 6위
36전 11승 12무 13패 45점 42득 48실-6

SUMMARY 세트피스에 올랐다. 세트피스에서 가장 적은 득점(9골)과 가장 많은 실점(23골)을 각각 기록했다. 슛 1개를 때리기 위해 공격 7.5회를 시도해 나쁘지 않았지만, 정교한 마무리가 아쉬웠다. 시즌 도중 사령탑 교체로 집중력이 흐트러진 핸드캡도 극복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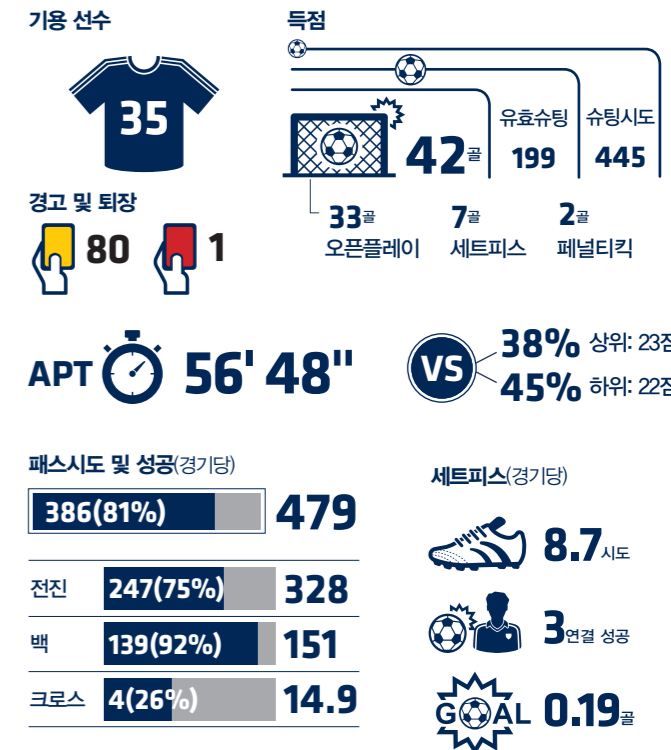
TEAM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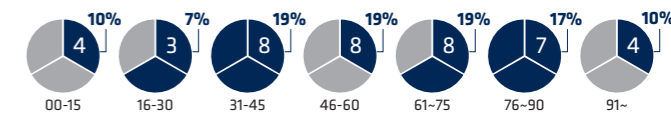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대술	8	778	9	29	2	
	박철호	4	387	6	5	1	
	이상욱	24	2311	33	93		
DF	김민재	2	192			1	
	김봉래	13	1171		5		
	김창훈	4	375			1	
	레이어	29	2603	3		9	1
	류언재	1	19				
	블라단	23	2150			5	
	안재훈	5	144				
	이한샘	9	558			3	
	임하람	14	1141			2	
	황재훈	24	2223	2	1	6	
MF	가필란	1	59				
	김철호	8	569				
	민현홍	5	321				
	배신영	13	454				
	사상민	17	1087	1		2	
	송민우	2	46				
	이광진	31	2573		3	11	
	정훈	23	1645		1	8	
	최원철	9	591	1	1	2	
	카르모나	9	507	1	1	1	
FW	임성택	4	153				
	임창균	27	1807	3	2	4	
	김부관	3	92				
	모재현	15	707	3	1	1	
	배지훈	20	1723		2	5	
	백성동	32	2640	8	4	3	
	브루스	26	1960	6	1	4	
	서동현	16	986	5		1	
	송수영	26	1563	2	1	1	
	윤태수	5	247				
이승현	34	3026	7	1	4		
정철호	16	1315		2	3		

TEAM STATS



시간대별 득점 및 비율



시간대별 교체카드 사용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백성동	8	37	22%
	이승현	7	24	29%
	브루스	6	26	23%

ASSIST	이름	도움	키페스	키페스 성공%
	김봉래	5	20	25%
	백성동	4	53	7%
	이광진	3	42	7%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이광진	1650	1385	83%
	이승현	1175	938	79%
	레이어	1153	974	84%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이광진	145	78	53%
	정훈	116	48	41%
	김봉래	93	68	73%

K LEAGUE CHALLENGE



FC안양

감독 김종필
정규리그 7위
36전 10승 9무 17패 39점 40득 58실 -18

SUMMARY 공격 시도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았지만(경기당 108.3회), 1득점에 소요된 슈팅이 13.2개로 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경기당 크로스 시도는 리그에서 가장 많아 측면 공격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원에서 쿠아쿠가 전사처릴 싸웠다(경고 1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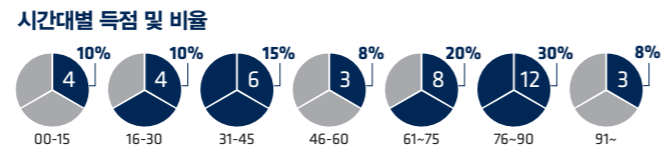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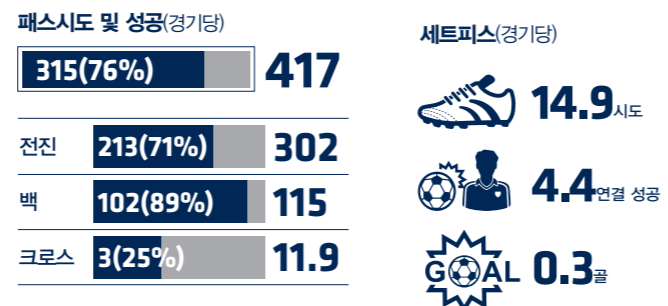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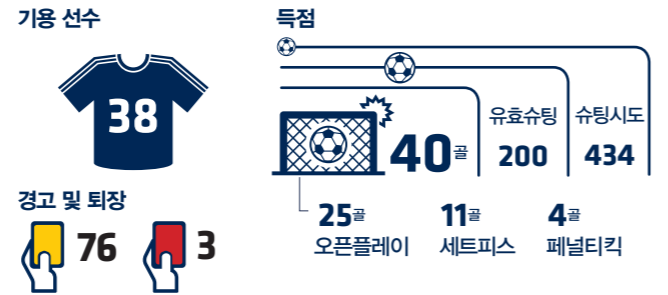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권태안	19	1825	30	40			
	김민식	17	1626	27	44	1	1	
	심재훈	1	14	2	1			
DF	강준우	18	1550	2		3		
	구대영	10	884					
	김찬영	4	277					
	김태호	30	2782			5		
	방대중	14	1354	1		3		
	안동혁	6	434			1		
	안성빈	18	1594		1	1		
	안세희	3	221					
	용재현	18	1682			9	1	
	이상용	24	2287	1	1	7		
	조영훈	7	567			2		
	채광훈	13	1071		2		1	
	MF	김민균	10	905	4	4	1	
		김원민	11	488				
		김형진	10	684			2	
		박승일	1	24				
		박한준	4	123			1	
안진범		9	538			1		
유수현		17	503			5		
이태현		2	115					
이현웅		1	59					
정재희		35	2650	8	5	2		
FW	주현재	4	349	1		1		
	최승호	19	1127			2		
	최영훈	5	265					
	최재훈	32	2785	2	2	6		
	쿠아쿠	25	2229			11		
	김신철	8	202	2		1		
	김효기	33	2557	5	3	3		
	루키안	10	926	4		2		
	박성진	6	222					
	알렉스	5	137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정재희	8	44	18%
	조석재	7	24	29%
	김효기	5	34	15%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정재희	5	52	9%
	김민균	4	41	9%
	김효기	3	57	5%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최재훈	1066	857	80%
	김태호	1066	834	78%
	구대영	1029	764	74%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최재훈	127	73	58%
	구대영	108	79	73%
	김태호	102	60	58%

K LEAGUE CHALLENGE



서울이랜드FC

감독 김병수
정규리그 8위
36전 7승 14무 15패 35점 42득 55실 -13

SUMMARY 시즌 중반부터 살아남아가 싶었으나 결국 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시즌을 마감했다. APT가 리그에서 제일 길었다. 패스 시도가 아산에 이어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중원에 선 플레이메이커 아츠키가 전술 핵심 역할을 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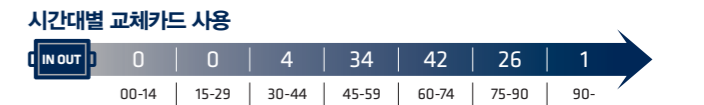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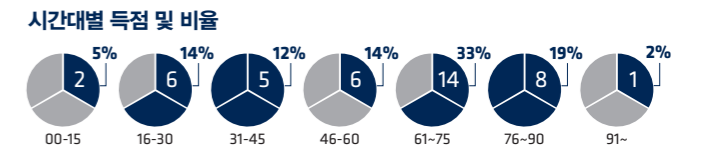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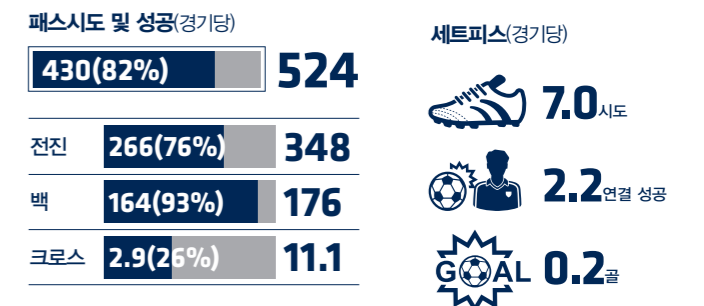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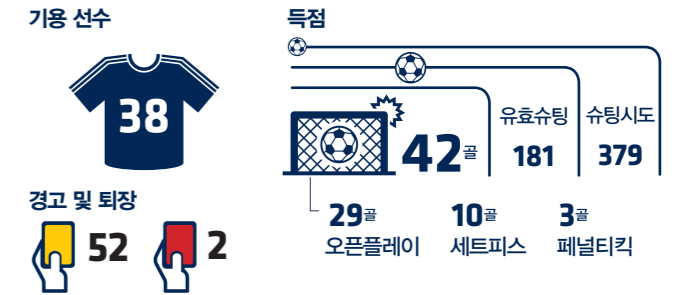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영광	36	3450	55	86	1	
	최오백/알렉스	7	70				
DF	최치원	23	1735	1	2	2	
	주한성	29	1874	2	2	3	
	유지훈/이예찬	28	766	1	1	1	
	아츠키	25	740			1	
	김창욱/김준태	66	901	1	1	2	
	금교진/김한솔	14	724			1	
	안재훈/김연수	50	1055			1	
	최호정	2	254			2	
	전민광	29	2521	1		2	
	김영광	1	65			1	
MF	고민혁	4	240		1		
	김대광	6	193	1		1	
	김병석	2	104				
	김성주	5	330			1	1
	김준태	24	1826		2	1	
	김창욱	21	1716	2	3	3	
FW	김태수	9	590	1			
	명준재	17	792	3	1	2	
	백지훈	15	829	1		2	
	아츠키	32	2879	2	7	3	
	조용태	5	303				
	최치원	17	1284	6	1	1	
	토모키	2	85				
	알렉스	14	1005	7		3	
	야고	3	198				
	최오백	15	1296	5	2	5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알렉스	7	21	33%
	최치원	7	20	30%
	최오백	5	15	33%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아츠키	7	72	9%
	김창욱	3	24	12%
	최오백	2	23	8%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아츠키	1865	1605	86%
	최호정	1676	1452	86%
	김준태	1484	1242	83%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아츠키	169	103	60%
	김준태	117	56	47%
	김봉래	93	68	73%



K LEAGUE CHALLENGE

안산그리너스FC

감독 이흥실
정규리그 9위
36전 7승 12무 17패 33점 36득 54실 -18

SUMMARY 리그 최소 득점(36골)이 안산의 시즌을 정리한다. 라울이 리그 15골로 뛰어난 활약을 보였지만, 팀 내 득점 2위인 정경호와 한건용이 3골에 그쳤다. 도움에서도 챌린지 도움왕 장혁진(13개)의 다음 기록이 2개로 뚝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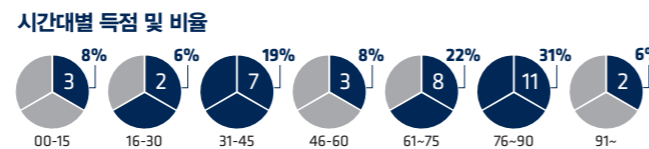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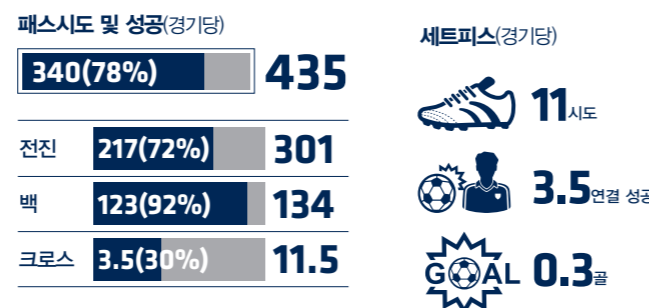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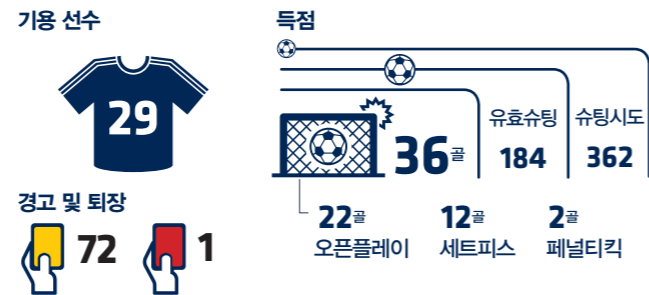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황성민	30	2877	46	91		
	황인재	6	579	8	20		
DF	강태욱	9	512			1	
	류현진	8	149			1	
	박준희	22	1912	1		5	1
	박찬울	13	1119			2	
	박한수	24	2179	3	1	5	
	서준영	2	115				
	손기련	25	1824			1	
	송주호	24	2105			7	
	오윤석	11	856		1	1	
	이인재	16	1412	2		3	
	MF	김명재	9	249	1		
김민성		11	658			1	
김병석		15	1135	1		1	
유연승		26	2284	1	1	7	
장혁진		33	3165	2	13	5	
정경호	23	1222	3		2		
정현식	28	2269		2	3		
조우진	14	1111			1		
FW	곽성찬	5	172			1	
	나시모프	23	1329	2		3	
	라울	31	2882	15	2	6	
	루카	9	233	1		2	
	월리엄	2	35				
	이건	21	2005			8	
	이민우	24	1382		1	1	
	한건용	24	1716	3	2	3	
	홍동현	9	509			2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라울	15	52	29%
	정경호	3	8	38%
	한건용	3	15	20%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장혁진	13	77	16%
	한건용	2	40	5%
	정현식	2	18	11%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장혁진	1760	1356	77%
	유연승	1258	963	77%
	정현식	1056	914	86%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장혁진	161	111	68%
	유연승	123	82	66%
	정현식	92	60	65%



K LEAGUE CHALLENGE

대전시티즌FC

감독 이영익, 김종현 대행
정규리그 10위
36전 6승 11무 19패 29점 41득 60실 -19

SUMMARY 황인범의 '소년가장' 별명은 명불허전이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스인 1847개를 기록하면서도 성공률 81%로 고 효율이었다. 하지만 리그 최소승(6승), 최다 실점(60골)으로 우울했다. 내용은 재미 있었다. 숏 1개 시도에 걸리는 소모시간이 경남과 안양 다음으로 짧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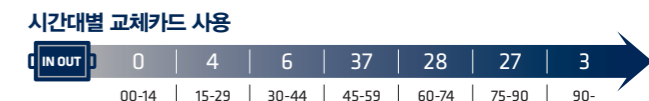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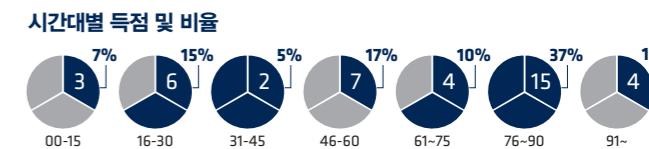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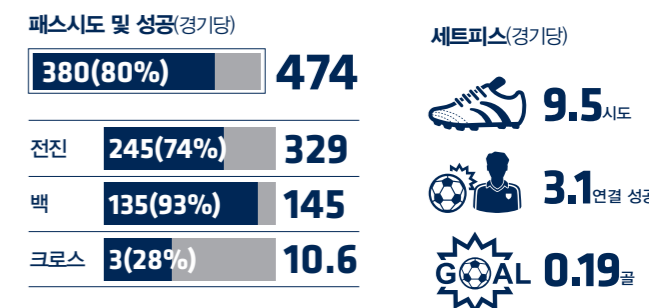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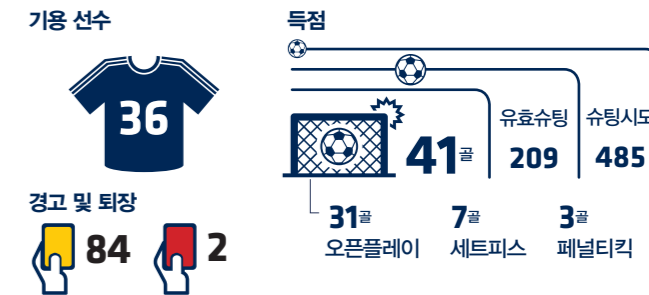
TEAM FORMATION



SQUAD

포지션	이름	출전수	출전시간	실점	선방	경고	퇴장	
GK	김기용	5	490	12	7	1		
	이영창	10	963	18	24			
	전수현	21	2011	30	75	1		
DF	김진규	13	1100			4		
	김태봉	11	957	1	2	1		
	김태은	25	2167			13		
	김해식	6	387					
	문진용	3	85			1		
	박우정	1	11					
	박재우	21	1623		2	5	1	
	박주성	9	830			3		
	윤신영	21	1838			2		
	윤준성	6	535					
	장원석	14	1073		1	5		
	장준영	23	2032	1		7		
	전상훈	11	994			2		
	MF	강승조	10	417			2	
		강윤성	14	1133			2	
공용훈		1	70					
김대열		32	2512		1	5		
김정주		15	864		3	1		
FW	신학영	24	1343	1		2		
	조상범	11	708		1	1		
	조예찬	3	95			1		
	황인범	32	2906	4	4	4		
	이현승	6	405	1		1		
	이호석	27	2109	5	6	7		
	FW	김찬희	18	1031	4	3	4	
		남윤재	1	48				
		레반	28	1822	5	2	1	
		박대훈	15	566	2	1	2	
브루노	18	1513	4	2	3			
정민우	14	694	4		2			
크리스찬	25	2159	9	3	3	1		
한승엽	3	206						
황지웅	4	163						

TEAM STATS



PLAYER STATS

GOAL	이름	득점	유효슈팅	유효슈팅-득점%
	크리스찬	9	34	26%
	이호석	5	20	25%
	레반	5	27	19%
ASSIST	이름	도움	키패스	키패스 성공%
	이호석	6	85	7%
	황인범	4	80	5%
	김정주	3	25	12%
PASS	이름	패스	성공	성공%
	황인범	1847	1500	81%
	김대열	1518	1340	88%
	김태은	960	790	82%
TACKLE	이름	태클	시도	성공%
	김대열	204	121	59%
	박재우	79	56	70%
	김태은	79	54	68%

2017 K LEAGUE TECHNICAL REPORT

발행처	(사)한국프로축구연맹
데이터	스포츠투아이주식회사
편집	주식회사 별
디자인	디자인아이엠
발행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 5층
발행일	2018년 1월 15일

- 이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사진은 Fphotos가 제공한 것으로 허가 없이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사전 허가 없이 책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사용된 K리그 기록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공식 기록과 스포츠투아이주식회사의 K리그 부가 기록의 기준에 따릅니다.



K LEAGUE

2017 K LEAGUE **TECHNICAL REPORT**